

북한정치 연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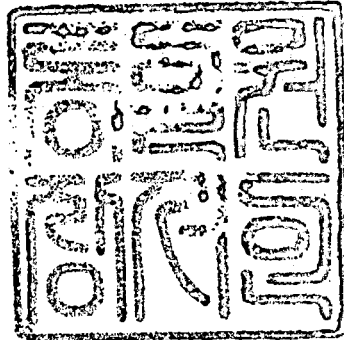
(국통조 80-12-111)

---

北韓體制 管理의 限界性과  
改革模型 研究

---

1990



통 일 원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정치 종합연구계획의 하나로 추진, 발간된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 관리의 한계성이 이미 각 부문에 걸쳐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 소련·동구의 개혁과 개방 조류와 맞물려 북한체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택할 개혁 모형으로는 동독식의 합의적 공존형이나 중국에서 채택한 바 있는 정경분리형 부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자에 수록된 주장들이 당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0. 12.

調 査 研 究 室



# 北韓體制 管理의 限界性과 改革模型 研究 (要旨)

## 1. 北韓體制的 特徵과 限界性

○ 北韓體制的 變化는 1992 年을 고비로 不可避

- 오늘날 國內外 北韓專門家들은 蘇聯·東歐의 改革과 開放趨勢를 지켜보면서 하나같이 北韓體制的 變化가 不可避한 것이라고 評價하고 있으며, 그 時期는 대체로 1992 年이 最大 고비가 될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음.

○ 北韓體制는 社會主義的 教條主義 段階의 落後 狀態

- 北韓은 스스로 社會主義의 끝 段階인 “社會主義 建設段階”에 이미 到達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客觀的 評價를 통해 본 北韓은 社會主義 變遷段階에서 가장 落後된 狀態인 “社會主義的 教條主義(스탈린主義)段階”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비해 東歐·蘇聯은 社會主義的 實用主義 段階 및 社會主義的 民主化 指向 段階에 이르러 있는 바, 이는 向後 北韓體制 變化의 將來를 示唆해 주는 것임.

○ 北韓體制 管理의 限界性은 이미 露呈

- 北韓의 金日成 1人體制는 ① 共產主義的 官僚主義 弊害의 尙存 ② 經濟沈滯와 南北韓間의 隔差 加速化 ③ 對外 閉鎖政策과 科學·技術의 落後 ④ 軍事費의 過多 支出 ⑤ 外債難 등으로 인해 體制 管理의 限界性을 드러내고 있음.

- 이에 따라 北韓體制의 向方은 ①金日成이 生存하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見解 ②改革・開放潮流에 의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見解 ③部分的으로 改革・開放을 追求해 나갈 것이라는 見解로 分類할 수 있음.

## 2. 共產圈의 實用主義的 改革 模型과 限界性

○ 共產圈의 改革・開放은 時代的 潮流로서 定着

- 共產圈 國家의 性向을 歷史的으로 接近・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은 特徵들이 도출됨.

① 現 共產圈 國家中 改革國家는 蘇聯 등 10 個國, 改革中인 國家는 2 個國(알바니아, 베트남), 非改革 國家 2 個國(北韓, 쿠바)으로 分類됨.

② 歷代 改革主體者들은 레닌, 고르바초프 등 모두 13 名으로서 非스탈린主義 立場임.

③ 金日成은 非스탈린主義와 전혀 關係가 없으며, 歷代 改革主體者들이 티토의 自然死만 除外하고 大部分 失脚, 被襲, 臥病 등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金日成은 改革을 根本的으로 回避함.

※ 그러나 金日成은 고르바초프 路線의 共通點이 먼저 共產圈에서 스탈린主義者 追放 → 民主改革과 市場經濟 導入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 東歐改革 및 獨逸統一에 미친 고르바초프의 絶對的인 影響力을 意識하여 改革・開放 제스처라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④ 金日成이 改革・開放의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경우 東獨 호네커의 合意的 共存型을 취하거나 또는 鄧小平式 政經分離型 部分改革을 試圖할 可能性도 있음.

- 北韓에 미치는 影響은 體制內的 改革 摸索에 局限
  - 共產圈의 改革 成功 與否는 불투명하지만 北韓體制에 어떤 形態로든 中대한 影響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影響力은 지대할 것임.
  - 北韓의 改革・開放은 이제 體制 生存的 問題로까지 대두되어 있으나, 金日成・金正日이 生存하는 한 部分的이며 體制內的인 改革 밖에 摸索하지 못할 것으로 評價됨.

### 3. 北韓體制的 變化 方向

- 當分間(2-3年) 現體制 固守
  - 金日成은 國際情勢의 急變, 北韓內部的 經濟難 등 否定的 要因이 增大됨에 따라 자신의 生存中에 金正日에게 段階的으로 權力을 移讓하는 計劃을 推進中임.
  -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北韓 軍部の 忠誠 誓約, 再다짐, 金正日의 國防委員會 第1副委員長 任命 事例 등은 政治權力의 核心인 軍部勢力을 親衛化함으로써 國際秩序의 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國內的 基盤을 確固히 하자는 것임.
- 北韓은 對內外 二重戰略과 漸進的 變化 同時 追求
  - 北韓은 主體思想에 立脚한 對南革命戰略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對美・日 宥和政策 追求 등 二重的 戰略을 驅使하는 漸進的인 對應方向으로 變化 壓力에 對處해 나갈 것임.

○ 北韓體制는 金日成 以後에 變化 加速化 展望

- 金日成 以後 展開될 金正日 時代는 經濟難의 加速化를 비롯한 內部矛盾과 蘇聯의 壓力 등 外部要因이 겹쳐 1 - 2年內에 急進的인 變化를 不可避하게 겪게 될 것임.

- 이같은 北韓의 狀況 展開는 集團指導體制의 登場을 可能케 할 것이며, 그 結果 主體思想의 解體作業이 進行되면서 北韓 政治·社會制度는 全面的 再構築 過程을 겪게 될 것으로 展望됨.

#### 4. 政策的 檢討 事項

(1) 韓國의 政治·社會的 安定과 發展에 바탕을 둔 北韓 開放 및 政治 體制 變化 誘導

○ 韓國의 中長期的 政治發展 計劃 樹立으로 體制 優越性を 維持· 確立

○ 經濟成長 持續으로 赤化戰略의 拋棄 誘導

○ 政治 社會的 統合 增進(地自制의 段階的 定着, 社會的 安定 등) 을 통해 「北韓의 南韓化」動因을 極大化

○ 北韓住民 또는 政治엘리트들과의 接觸·交流機會 增大로 政治意識의 變化를 促進

○ 한민족공동체 意識을 增大시키는 學術會議 開催 등 文化的 接近 竝行



○ 시베리아 開發에 北韓도 共同參與 促求

○ 南北 頂上會談의 實現 등

(2) 北方政策의 持續的 積極化로 北韓의 「南方政策」推進 誘導

○ 北韓 스스로 「南方政策」을 推進하도록 北方政策의 結實을 體系化 하고 持續的으로 管理

○ 蘇·東歐의 變化 물결과 西方世界와의 協力을 바탕으로 北韓 體制內의 改革·開放을 계속 促求



# 北韓體制 管理의 限界性과 改革 模型

朴 一 聖

內外通信 研究委員

## 目 次

- I. 序 言
- II. 金日成體制的 特徵과 限界性
- III. 共產國家의 實用主義的 改革과 限界性
- IV. 蘇聯・東歐圈의 改革, 開放과 그 教訓
- V. 結 言



## 1. 序 言

### 가. 問題意識과 研究目的

今年度 美國의 時事週間誌 「타임」은 지난 10年을 마감하며 고르바초프를 「80年代 人物」로 選定하면서 “世界史의 무대에 기적이 펼쳐지고 있다. 견고했던 冷戰의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世界가 展開되고 있다. 이 기적의 물꼬를 튼 기적의 마술사, 그가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다”라고 理由를 說明했다.

또한 노르웨이 노벨 平和賞委員會도 고르바초프에게 90年度 노벨 平和賞을 수여하면서 “지난 수년동안 東西關係에서는 수 많은 극적 變化들이 일어났다. 對立이 協商으로 轉換됐으며 오랜 歷史를 지낸 유럽의 많은 民族國家들이 自由를 되찾았다. 軍備競爭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軍縮과 무장해제의 方向으로 나아가는 確實하고도 能動的인 進展實況을 목격하고 있다. 90年度 노벨 平和賞委員會는 이같은 歷史的 變革過程에서 수 많은 決定的 役割을 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을 치하하고자 한다. 고르바초프大統領이 지대한 공헌을 한 이같은 일련의 平和過程이 이데올로기, 歷史, 文化的 갈등으로 점철된 많은 난제들을 解決하려는 世界社會에 새로운 可能性을 열어준 것으로 評價된다”고 밝혔다.(1990.10.16, 서울신문, p.4參照)

確實히 그렇다. 1985年 蘇聯共產黨總書記로 就任하면서 그가 제창하고 推進해온 「페레스트로이카」(改革)과 「그라스노스찌」(開放)路線은 蘇聯國內에서는 「政治의 民主化」, 「經濟의 市場化」, 「社會文化의 自由化」

및 「對外開放化」를 志向하고 있고 國際社會에서는 스탈린時代의 第2次大戰의 유산인 東西冷戰體制를 청산하고 그대신 美蘇和解, 東西協力, 東歐解放, 獨逸統一, 韓蘇頂上會談, 韓蘇修交등 불과 數年前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창조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해서도 그는 블라디보스토크演說( '86.7.28 )과 그라스노야르스크演說( '88.9.16 ) 및 北京演說( '89.5.17 )등을 통해 헬싱키式 亞太安保協力會議 및 이를 實現하기 위한 一連의 方途들을 提案했다. 그럼에도 아직 이地域에 있어서는 日本의 北方4島返還請求, 北韓의 「二個朝鮮政策」反對등 地域的 問題들로 이렇다 할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北韓의 경우 南北高位級會談에는 應해오면서 韓國의 北方政策과 蘇聯, 東歐諸國의 對韓 國交正常化등에 대해서는 물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不滿과 反撥을 보이고 있다. 즉 北韓은 자기들의 改革·開放을 권유하는 蘇聯을 비꼬아 이를 「社會主義를 말살하려는 帝國主義者들의 反革命的 策動」으로 매도하면서 소위 「革命的 原則性」을 내세워 “黨의 原則을 양보하고 지버리는 곳에서는 社會主義가 병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改革, 開放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北韓의 態度에 대해 蘇聯 「이즈베스찌아」紙 論評員 알렉산더 보빈은 “北韓이 “페레스트로이카”를 계속 反對할 경우 東獨事態의 再版 可能性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日本 每日新聞, 「페레스트로이카窓」1990.10.22 )

蘇聯의 週間誌 「論據와 事實」( 90.3.31 號)은 北韓이 페레스트로이카를 계속 拒否할 경우, 지속되는 經濟的 침체와 生活苦에 신음하는 人民의 不滿이 쌓여 루마니아事件과 같은 變革이 일어날 것을 示唆하고 있

다.

日本の 北韓專門家, 玉城素(다마키 모토이)氏は “安全을 바라는 蘇聯과 中國의 開放壓力으로 北韓의 變化는 92年이 최대고비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신문, 「日專門家が 진단한 平壤의 앞날」1990.6.14),

아무튼 專門家들의 견해는 北韓에도 變化가 오고야 말것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北韓의 變化는 위로부터 오는 「東獨」型일까? 여기에 대한 解答은 그렇게 간단치 않을것 같다.

알다시피 第2次世界大戰以後 生成된 共產國家들은 모두 판에 박은듯이 스탈린式 社會主義體制를 본받았으나 各己의 歷史的 條件, 地政學的 環境, 統治者의 性向 및 政策等 諸般要因에 따라 近半世紀를 지내<sup>는</sup> 동안 社會主義的 位相을 달리하였다. 이번에 東歐에서처럼 各國은 自國의 位相에 따라 變遷樣相도 달리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北韓의 變化樣相을 豫測하려면 社會主義的 變遷過程에서의 北韓의 位相부터 정확히 把握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나. 接近方法

### (1) 前提 및 假定(共產國家의 變遷과정에서 본 北韓의 位相)

일찌기 맑스는 共產主義를 높은 段階(高級段階)와 낮은段階(初級段階)로 區分, 낮은段階를 社會主義라고 規定하였다. 즉, 社會는 자본주의사회로부터 社會主義社會로 發展하여 最終적으로 共產主義社會로 進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17년 蘇聯의 10월革命은 당시 구라파에서 자본주의적으로 가장 落後된 러시아에서 발생되었고, 第2次世界大戰以後 共產化된 國家들도

大部分 社會的 革命에 의해서가 아니라 毛澤東의 말대로 「銃口」로 부터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맑스의 社會發展論에도 修正이 加해지지 않을수 없게 됐다.

즉, 現代修正主義의 선구자로 지적되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現 蘇聯式社會主義體制를 前近代的 社會가 近代的 社會로 移行하려는 「과도기적 사회」 또는 「과도기적 사회주의시기」라고 規定하였다.( 1956, 유고共產主義者同盟 綱領草案) 그리고 蘇聯에서도, 現 사회주의단계를 「共產主義 移行期」(1961, 採擇, “후루시초브綱領”), 또는 「發展된 社會主義」(브레즈네프時代)로부터 지금은 「發展途上社會主義」( 1986.10. 2, 全蘇聯大學 社會科學講座 主任會議에서의 고르바초프演說)로 規定되고 있다.

또 아시아의인 농업사회에서 共產政權을 樹立한 中國의 경우, 中國의 社會主義는 現在 「初級段階」에 있다면서 「初級段階論」을 제시하고 있다. ( 87. 6.19. 黨機關紙 「人民日報」 提載論文「中國社會主義初級段階에 關한 問題의 探索」).

北韓의 경우, 맑스의 段階說을 교조주의적으로 信奉하되 社會主義段階를 다 시 스탈린式으로 「人民民主主義 革命段階」, 「社會主義 革命段階」, 「社會主義 建設段階」로 區劃하고 北韓은 이미 1960 년를 前後하여 社會主義 마지막 단계인 「社會主義 建設段階」에 到達했다는 것이었다.( 79. 9.29. 「전국로동일꾼대회에서 한 金日成演說文」 參照)

이 밖에도 社會主義·共產主義에 관한 段階論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經驗과 現實에 비추어 보면 1917년 볼셰비키 10月革命以來 이 번 東歐·蘇聯의 改革·開放까지 約70年間に 걸친 공산국가들의 變遷過程에는 <表1>과 같이 大體로 社會主義的 교조주의(스탈린主義)段階, 社會



主義的 實用主義段階 및 社會主義的 民主化 指向段階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本論에서 다시 考察되겠지만 그럴 경우, 우리는 오늘의 北韓을 共產國家들에 머물러있다고 假定할 수 있을것 같다.

여기서 우선 北韓이 社會主義 變遷過程에서 가장 落後된 狀態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로 다음 <表2>와 같이 共產國家들의 1人當 GNP를 比較해 볼 수 있다.

<表1> 共產國家의 段階別 變遷過程

共產國家의 變遷過程	社會主義的 教條主義時期	社會主義的 實用主義時期	社會主義的 民主化指向時期
各國의 位相 (例)	北韓, 쿠바	中國(現) 改革前 東歐	東歐(現) 蘇聯(現)

<表2> 共產國家 1人當 GNP 比較

(單位：弗)

國 家 名	年 度	1人當GNP	國 家 名	年 度	1人當GNP
蘇 聯	88	4,798	체코슬로바키아	86	6,280
헝 가 리	88	2,020	알 바 니 아	85	900
유고슬라비아	87	2,180	쿠 바	85	2,991
폴 랜 드	88	2,070	베 트 남	89	198
불 가 리 아	86	3,580	몽 고	88	1,140
루 마 니 아	86	2,400	中 國	89	302
東 獨	86	7,760	北 韓	89	987

※ 出處：① 東歐圈, 「東歐圈國家의 變革과 葛藤」, 自由評論社, 89.12.30

② 其他, 「世界各國便覽」, 國家安全企劃部, 90. 9

共產國家 1人當GNP 比較表에서 볼수 있는것 처럼 1人當GNP 1千弗未滿의 나라는 알바니아, 베트남, 中國, 北韓들로서 공산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다.

그렇지만 그중 1人當GNP에서 北韓보다 낮은 中國이 實用主義的 단계로 進入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中國이 「政經分離」原則에 따라 部分的으로나마 改革, 開放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人當GNP에서 形式上 北韓은 中國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生活水準에서는 中國보다 낮은편이므로 北韓實情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은 北韓의 1人當GNP 980弗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月刊朝鮮 12月호, 연변동포의 「北韓從橫記」 參照, 1990. 서울)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分析 考察될 것이다.

## (2) 研究對象 및 方法

이상과 같은 前提下에 北韓이 아직 教條主義的 段階에 머물러있다고 假定할때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教條主義段階의 特徵을 分析·北韓의 社會主義的 教條主義 位相을 確認하고, 北韓이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理由로서의 교조주의적인 不變要因과 그의 可變要因으로될, 教條主義的인 限界성과 矛盾을 각각 도출한다.

그렇다면 北韓의 不變性을 勘案하여 北韓을 實用主義段階로 移行시킬수있는 變數는 무엇인지, 他共產國家들의 실용주의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그變數를 導出하여 對北 適用 可能性을 診斷한다.

다음으로 現 蘇聯 및 동구라파諸國의 改革·開放 및 統獨過程을 概觀, 그속에서 教訓을 도출함으로써 우리의 對北認識과 統一政策을 樹立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金日成體제의 特徵과 그 限界性

### 가. 金日成體제의 教條主義的 特徵

알다시피 共產主義者들의 理念은 全世界的 範圍에서 共產主義 社會를 具現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맑스와 엥겔스는 文明된 나라들에서의 同時 革命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幻想이었다. 따라서 레닌은 “資本主義란 원래 政治的으로나 경제적으로 不均等한 것이므로 社會主義革命은 一國에서도 可能하며 그나라에서 승리한 프로레타리아는 ①自己나라의 生産手段을 社會主義的으로 조직한다음, ②다른 資本主義 나라들의 被壓迫階級을 자기편으로 包攝하며, ③그나라에서 反資本主義的 蜂起를 일으켜 必要한 경우에는 武力을 사용하더라도 착취계급과 對象國家를 反對하는 鬭爭을 할것”이라고 말했다.(레닌全集 第 21 卷, pp.352, 「구라파合衆國의 슬로간에 대해서」 1915. 8.23 )

한편 스탈린도 西歐에서 革命이 勝利하지 않아도 「自己力量」으로 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할 수 있으나 그래도 “西歐에서 몇개 나라만이라도 革命에 승리해야 하므로 社會主義를 建設하고 있는 蘇聯을 「世界革命의 基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스탈린全集 第 8 卷 및 「레닌주의 諸問題」 pp.302, 1926. 1. 25 )

우리는 이와같은 論理와 「語句」들을 8. 15 해방後 오늘까지 金日成體制 下の 朝鮮勞動黨規約( 1980.10 ), 北韓憲法( 1972.12.27 ) 및 關聯資料( 1990.10. 金正日論文 包含 )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것들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1) 朝鮮勞動黨의 目的(理念)

(가) 當面目的은 北半部(北韓)에서의 社會主義 完全勝利와 全國的 範圍(南韓 包含)에서의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反美·反韓共產主義)革命課業을 完遂하는데 있고

(나) 最終目的은 온사회를 金日成主體思想化 및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勞動黨規約 前文, 北韓憲法 第5條 參照).

이것은 맑스의 革命理念, 레닌의 一國社會主義論을 우리韓半島에 教條적으로 適用한 것이다.

### (2) 對南鬪爭方向

(가) 黨은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를 몰아내고……日本軍國主義 再侵 企圖를 좌절시키기 위한 鬪爭을 展開하고…南朝鮮人民들의 社會의 民主化와 生存權鬪爭을 積極 支援하고……조국통일을 이룩하고……(黨規約 前文).

위에서 옮긴 內容은 앞에서 引用한 레닌의 주장과 類似하다. 金日成의 教條主義的 性向은 다음 (3)項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 (3) 指導指針

(가) 黨은 오직 金日成 主體思想·革命思想에 의해서만 指導된다.(黨規約 前文)

(나) …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에 創造적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北韓憲法 第5條)

여기서 北韓體制는 教條的이며 黨 優位原則에 立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主體思想의 構成

(가) 主體思想의 唯一化

○ …黨은 唯一思想體系를 세우는 것을 黨建設과 活動의 基本原則으로 삼는다.(黨規約 前文)

○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운다는 것은 “黨을 創建한 首領의 思想으로 全員이 武裝” 하는 것이다.(「政治用語辭典」)

○ …黨員은 黨과 首領에 無限히 充實하고 黨의 要求에 따라 생각하고 行動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接受하고 擁護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黨規約 第1章 4.1)

○ …黨員은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封建的 儒敎思想·修正主義·事大主義·宗派主義·地方主義 및 家族主義를 反對하여 堅決히 鬭爭한다.(上同)

○ …主體思想에 기초한 黨의 統一과 단결을 노동자와 같이 固守하여야 한다.(上同)

○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行動을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을 反對하여 …적과 타협하는 …黨員은 출당시킨다.(黨規約 第1章 5.7)

#### (나) 政治의 自主化(獨裁化)

○ 黨員은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위하여 個人的 이익을 犧牲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黨規約 第1章 4.6)

○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執行해야 한다.  
(黨規約 第2章 11.23)

○ …共和國은 프로레타리아獨裁를 실시한다.(憲法 第10條)

○ …모든 國家機關들을 民主主義 中央集權制原則에 의하여 조직되며 運營된다.(憲法 第9條)

○ 民主主義 中央集權制는 …思想과 領導의 唯一性を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中央集權制度를 떠난 民主主義란 있을수 없다. …黨의 思想과 制度에 배치되는 民主主義, 中央의 統一的 指導를 떠난 순수 民主主義는 부르조아 民主主義와 自由의 以外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다. (上揭 金正日論文)

(다) 經濟의 自立化

- …生産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이다.(北韓憲法 第 18 條)
- …協同團體의 所有를 점차 全人民的 所有로 轉換시킨다.(第 21 條)
- …各級 黨組織은 地域 또는 生産 및 勞動單位에 따라 組織한다.
- …各級 黨委員會는 各 該當單位의 最高指導機關이며 政治的 總參謀部이다.(黨規約 第 2 章)

○ 모든 事業活動에서 尙일유격대식 事業方法 및 淸산리정신과 方法을 適用하고 經濟事業에 대한 效果的인 指導를 통해 革命課業을 效果的으로 보장한다.(黨規約 第 2 章 45.8 )

○ 國家는 …社會主義 經濟管理形態인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經濟를 指導管理한다.(憲法 第 30 條)

여기서 參考로 指摘하고 싶은 점은 蘇聯, 東歐圈의 本格的인 市場制 轉換 및 中國의 補助的 市場制와는 正反對方向으로 北韓에서는 오히려 生産手段의 全人民的 所有制(全般的 國有制) 擴大와 黨主管下의 中央集權的 命令式 計劃經濟 管理體制를 強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 國防의 自衛化(軍事優先主義)

○ 朝鮮人民軍은 …黨의 革命的 武裝力이다.(黨規約 第 7 章 46 )

※ 人民軍에 관한 規定은 憲法에 없고 黨規約에만 있다.

○ 黨은 남조선에서 美帝國主義…를 몰아내고 …日本軍國主義의 再侵

기도를 挫折시키기 위한 鬪爭을 前提하고...南朝鮮人民들의 社會의 民主化와 生存權鬪爭을 積極 支援하고...祖國統一을 이룩하고...(黨規約 前文)

○ 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들은 朝鮮勞動黨의 規約과 黨中央委員會가 결정한 規定에 따라 組織되고 事業을 遂行한다.(黨規約)

北韓은 「14大軍事路線」에 따라 지난 60年代부터 ①全人民의 무장화, ②全國土의 요새화, ③全軍의 幹部化, ④裝備의 現代化等を 推進하고 있다. (1962년 12月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5期 4次 全員會議 「4大軍事路線」 採擇).

이같은 軍事優先政策에 따라 每年 軍事費로 GNP의 20%以上(韓國은 4.4%)을 支出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1989年度 「北韓經濟綜合評價」 90.9, 國土統一院)

#### (마) 社會의 組織化·動員化(閉鎖化)

○ 黨員들은 日常的으로 긴장된 動員態勢를 堅持한다.(黨規約 第1章 4.7)

○ 黨員들은 軍事知識을 배워 敵의 侵略으로부터 革命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革命的 大事變에 對備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上同)

○ 黨員은 革命的 課業의 遂行을 위하여...大衆을 動員하며(黨規約 第1章 4.4)...勤勞大衆의 社會的 組織을 強化...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正確히 遂行하도록 監督한다.(당규약 第6章 45.7)

○ 各級 黨委員會들은 집체적 指導原則을 철저히 시키고 個人의 주관과 獨단을 許用하지 말아야 한다.(김정일 상계논문)

### (5) 綜合·評價

이상과 같이 朝鮮勞動黨規約과 北韓憲法 및 關聯資料들을 근거로 北韓體制를 概觀해보면, 北韓은 아직도 맑스·레닌·스타린주의를 철저히 信奉하는 교조주의적 단계에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즉 北韓은 비록 人口面에서는 南韓의  $\frac{1}{2}$  밖에 아니되지만 南韓을 征服하고 한반도를 共產化하기 위해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唯一化, 一色化, 宗教化하고 김일성을 首領으로하는 權力의 一元化, 經濟의 自給化, 全人民의 武裝化 및 社會의 閉鎖化 등으로 北韓社會 全體를 革命基地로 意識化, 組織化, 動員化하고 있다.

이같은 金日成體制를 北韓은 “철옹성”이라고 스스로 評價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紙는 金日成體制를 하나의 “大兵營”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86. 8.21, 서울신문 「北韓은 國家아닌 巨大兵營」特輯記事 )

이러한 評價와 指摘은 낡은 時代의 產物이라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특히 最近의 北韓動態는 저들의 “大兵營”體制를 오히려 強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즉 90년 10月 金正日是 朝鮮로동당 창건 第45週年에 發表한 論文「조선로동당은 우리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題下에서 “우리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우리나라를 自主, 自立, 自衛의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켰으며… 오늘도 우리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기치따라… 조국땅위에 社會主義 “樂園”을 건설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주체사상 一色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革命的 原則, 社會主義的 原則을 고수… 思想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 金日成同志의 영도 밑에 당의 통일단결을 代를 이어 공고 發展시켜 나갈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北韓의 基本體制와 基本立場에 아무런 變化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선노동당정치이론지 「근로자」, 1990年10月號 掲載, 「조선중앙방송」  
1990年10月4日字)

그리고 北韓의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하는 中央人民委員會는 90年10月31日 「일부대학들의 이름을 고칠때 대한 정령」으로 “技術者, 專門家들의 양성 기관인 大學들의 이름을 뜻있게 지어부르는것은 자라나는 靑年學生들을 당 과 首領, 조국과 人民에게 끝없이 충실한 主體革命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 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면서 “일부대학의 이름을 完全히 고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조선중앙방송」, 90.11.2)

여기대해 90.11.5 모스크바방송은 “오늘부터 北朝鮮은 60個大學들은 조선로동당과 金日成主席의 革命的: 活動과 관계된 인사들의 이름을 따르게 된다”면서 그중 「평양사범대학」을 金日成동생 “김철주 名稱의 大學으로 … 「함경남도사범대학」은 金日成의 三寸 “김형권” 이름을 따르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최근 西方側은 北韓의 核武器개발과 在來式 軍事力 증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國防部發表 「90年度 國防白書」에 의하면 다음〈表3〉과 같이 北韓은 계속 대남우세를 堅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 北韓兵力 (韓國 對比)

區 分	① 人口	② 現役	③ 豫備役	④ 合 計	①/④ %
北 韓	2,139	99	600	699	33 %
韓 國	4,238	65	440	505	12 %
比 較	1 : 2	1.5 : 1	1.36 : 1	1.38 : 1	

※ 出處：韓國 國防部,「90 年度 國防白書」)

아무튼 北韓의 現金日成體制은 지금까지 맑스의 共產主義理念(全世界의 共產化)를 具現하기 위한 레닌의 一國社會主義(對內的으로는 社會主義建設, 對外的으로는 世界革命基地化)路線과 스탈린式 大兵營體制를 機械的으로 適用, 金日成獨裁와 對南武力赤化統一을 志向하는 教條主義的 體制이며 少數의 多數征服型으로 評價된다.

#### 나. 教條主義體制的 限界性

萬事에는 強弱·長短등 兩價性을 가지고 있으며 마침내 그것은 辯證法的 發展으로 指向하는 것이 歷史發展의 法則이다. 教條主義的 金日成體制가 제 아무리 「少數의 多數征服」型이며 「弱者의 强者打勝」型이라해도 歷史와 經驗은 教條主義制度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모순을 낳게 되며 그 모순이 蓄積되면 마침내는 教條主義的인 外皮를 벗어버리고 實用主義的 段階로 移行할수 밖에 없다는 事實을 가르쳐 주고 있다.

##### (1) 金日成體制的 矛盾

고르바초프는 蘇聯共產黨 第28次大會(1990. 7.2~13)의 보고연설에서 소련의 現단계는 “自由로운 시민사회가 스탈린式 社會주의와 代替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조직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 自由選舉, 多黨制, 人權을 同伴한 참된 민주주의가 確立되려고 하며 現實적으로 人民의 主權이 再生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스탈린식 社會主義에서는 정치적으로 一黨獨裁만 있었고 민주주의와 人權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經濟分野에 있어서 “所有와 自身の 勞動結果로부터 근로자는 疏外하는 根源이었던 生産관계가 해체되고 사회주의적 생산자의 自由競爭條件이 創出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國共有制下的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權威主義的, 官僚主義的 體制的 犯罪때문에 실질적인 所有者이며 生産者인 근로자들은 疏外되었으며 自由競爭權도 封鎖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이데올로기를 強要하는 분위기 代身에 自由로운 思考와 그라스노스찌(公開), 社會의 情報公開가 到來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속에서는 思想의 自由와 자유롭고 다양한 思考 그리고 發表의 自由와 情報의 公開가 許容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이같은 스탈린식 사회주의의 罪惡을 權威主義的, 官僚主義的 犯罪라고 糾彈하였다.

## (2) 金日成體制的 限界性

### (가) 共產主義的 官僚主義

教條主義的 諸矛盾가운데서 歷代 共產統治者들의 最大 苦悶겨리는 共產黨이 낳은 官僚主義로 지적되고 있다. 參考로 그들의 黨官僚主義觀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 1) 스탈린

“낡은 社會의 官僚보다 共產黨官僚가 더 危險하다. 그들은 黨員의 身分으로서 官僚主義를 음폐하려 하기 때문이다.” (스탈린, 소련共產青年同盟 第8次大會 演說, 1928. 5.17 )

### 2) 티 토

“官僚主義의 國家主義는 社會主義의 最大의 障礙로 되며 그것을 抑制하기 前에는 社會主義的 前進이 不可能하다”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者同盟新綱領, 1958. 4 )

### 3) 金日成

“官僚主義는 틀을 차리고 행세부터 하면서 자기의... 세도를 쓰며... 주관적 고집만 부리고... 덮어놓고 내려메기는 데서 나타난다... 관료주의는 위에 거짓보고를 하고 아부아침하며... 비판한 동지들에게 壓力을 가하며... 인간성이 없고 人民生活에 무관심하며... 革命과 建設事業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 官僚主義는 黨의 路線과 政策을 왜곡... 黨의 전투력을 마비시키며 黨과 人民대중의 연계를 破壞하고... 人民대중의 자주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 역할을 말살함으로써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한다. (北韓 백과사전, 「관료주의」) ... 관료주의는 人民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革命事業에서 관료주의는 절대로 容納할 수 없다.(김일성, 「관료주의를 퇴치할때 대하여」, 1955. 4.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연설)

### 4) 코르바쵸프

이의 앞에서도 引用됐지만 그는 黨內 權威主義와 함께 黨官僚主義를 罪惡視하고 있다.(上揭, 소련공산당 第28次 報告演說)

(나) 教條主義的 經濟의 沈滯相

學者들은 스탈린식 大兵營的 社會主義는 全體住民의 意識化, 組織化, 動員化體制로서 產業의 勞力集約段階에서는 成長率이 높지만 時間이 흘러 教條主義的 矛盾이 蓄積되면 年間成長率이 3%이상으로 伸張하지 못한다는것이 定說로 돼있다.(美國의 W.W. 로스토우, 소련의 리베르만) 그렇지만 金日成은 이같은 定說을 다음과 같이 否定하고 있다.

“요즘 일부 경제학자들 속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끝임 없이 성장은 하지만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그 속도는 한해에 4~5%아니면 6~7%를 넘지 못한다는 이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꾼들 가운데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말하자면 공업이 발전할수록 예비는 점점 적어지며 생산장성 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후복구기에는 예비가 많았지만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닦아지고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 재건기에 들어선 오늘에는 예비가 얼마 없으므로 생산을 더욱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해동안에 생산이 겨우 2~3%밖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매해 工業生産을 6~7%씩만 올려도 높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論理로 복구기에 비하여 재건기에는 생산성장의 예비가 적어지며 따라서 經濟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生産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理論」, 1969. 3. 1)

金日成의 否認에도 不拘하고 다음의 資料들은 教條主義的 모순 축적은 그 나라들의 經濟를 沈滯시키고 있다는 學說들을 明白히 뒷받침하고 있다.

1) 美蘇間 GNP 隔差趨勢 比較

〈表 4〉에서 보는 것처럼 美蘇間 GNP 隔差는 1950年度에 32.1%였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좁혀져 86年度에는 55%로서 蘇聯의 成長速度가 빠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最近 蘇聯學者들이 밝힌데 의하면 지금까지 美國은 蘇聯의 宣傳的 數値에 속아 왔다면서 實際로는 〈表 4〉의 出處(※4)와 같이 蘇聯의 GNP는 美國의 그것에 비해 18%~25%로 보면 적당하다는 것이다.

〈表 4〉 美蘇 GNP 隔差趨勢 比較 (單位：%)

50	55	60	64	69	85	89
32.1	36.5	44.6	46.7	45.6	55.0	50.0
(※1)	(〃)	(〃)	(〃)	(※2)	(※3)	(25.0)(※4)

出處：(※1) 世界週報 66.11.8, 日本

(※2) 朝日新聞 71.12.2, 日本

(※3) 世界週報 87.5.26, 日本

(※4) 1990.4.19~22, 워싱턴에서 열린 「소련경제현황」에 관한 워크샵에서 蘇聯專門家들이 밝힌 것으로서 그들은 美國CIA는 50%로 보나 그것은 소련의 선전에 넘어선 것이며 실지로는 18~25%라고 밝혔다고 함.

(90.4.25, 서울신문)

2) 戰後分斷國家의 1人當 GNP 隔差 事例

東西獨·南北韓·中國本土와 臺灣은 各各 同一民族이었지만 制度的으로 民主·共產 兩側으로 分斷된 이후 40餘年을 지내는 동안 〈表 5〉처럼 共產側이 劣勢를 보이고 있다.

〈表 5〉

分斷國家의 1人當 GNP 隔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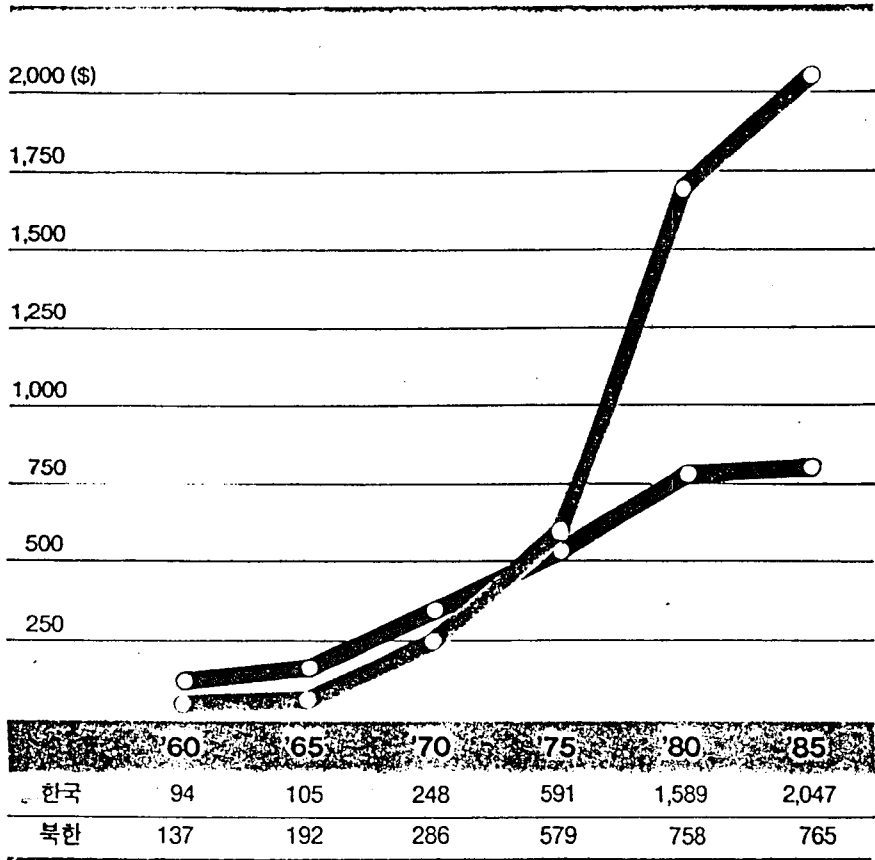
(單位：弗)

國家別	獨 逸		韓 國		中 國	
	西獨(88)	東獨(86)	南韓(89)	北韓(89)	臺灣(89)	本土(89)
1人當 GNP	18,530	7,760	4,968	987	7,518	302
(比較)	2.3	1	5	1	25	1

3) 北韓의 經濟的 沈滯와 南北韓間의 隔差 趨勢

〈表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北韓은 한때(勞力集約産業段階) 1人當 GNP에서 南韓을 앞질러 갔다. 그러다가 60年代中盤부터 韓國은 高度成長을 持續한데 反해 北韓은 教條主義的 沈滯狀態에 빠짐으로써 그 後 해를 거듭할 수록 南北韓 隔差는 擴大一路에 있다. 따라서 國民總生産(GNP)에서도 1989年末로 人口가 約 二倍인 南韓은 2,101 億弗 對 211 億弗로 北韓을 約 10 倍로 앞서고 있다.(〈表 7〉 參照)

〈表 6〉 1人當 G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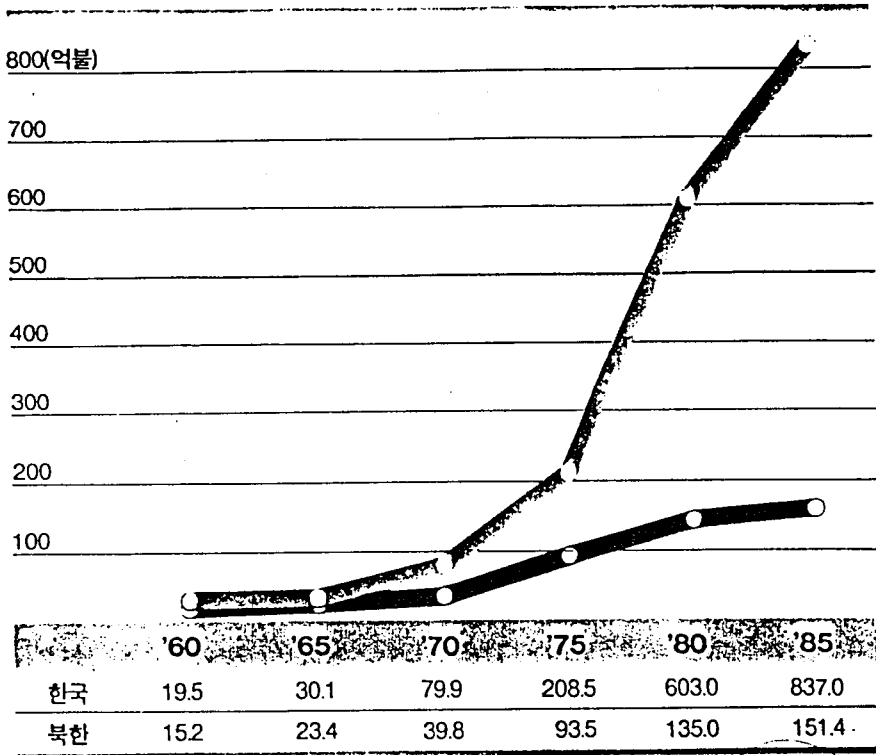


資料：국토통일원

蘇聯의 代表的인 經濟學者 나탈리아 바자노프는 “이 責任은 展示效果만을 겨냥한 金日成 - 金正일이 져야하며 또 經濟運營에 行政命令式 計劃經濟體制를 强要한 蘇聯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하였다.(프라우다紙 90. 8. 6, 内外通信 90. 8. 7)



〈表 7〉 國民總生産額 (GNP)



資料 : 국토통일원

(다) 對外閉鎖政策과 科學·技術의 落後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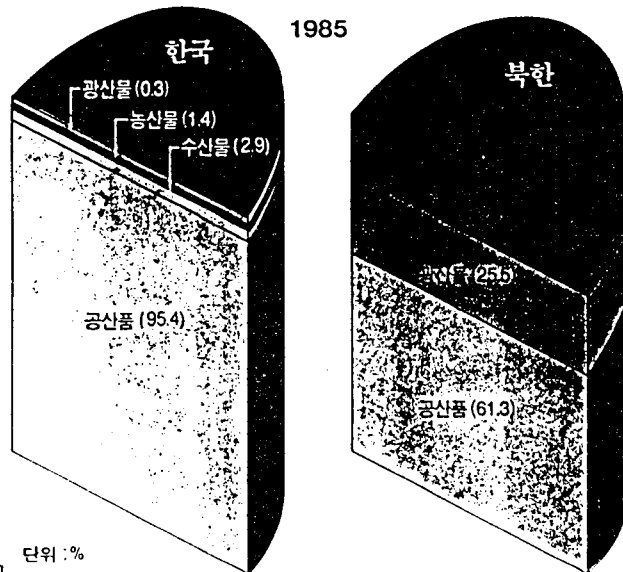
앞에서 英國의 선데이 타임즈의 존스웨인 記者도 보도한 것처럼 北韓 땅은 세계에서 가장 密閉된 곳이지만 그나마도 蘇聯, 東歐羅巴에 갔던 數百名의 유학생들도 소환해다가 思想教育캠프에 수용하고 있다.

國際的 信賴度도 세계에서 最下位를 마크함으로써 얼마前 日本公私債研究所에서 世界 1百個國을 대상으로 投·融資安定度を 調査한 바에 따르면 南韓은 20位에 오른데 비해 北韓은 93位에 머물렀다고 한다.(中央日報, 90. 5.17, 서울)

때문에 内外合營法을 制定해 놓고도 北韓과 合作하겠다는 外國企業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外國의 資本과 先進技術을 도입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對外輸出商品構造에 있어서도 <表 8>과 같이 北韓은 南韓에 비해 落後性을 免치 못하고 있다.

<表 8> 輸出商品構造



資料 : 국토통일원 단위 : %

(라) 軍事費 過多支出

教條主義的 共產主義者들은 世界征服(革命) 때문에 經濟의 軍事化 等 國家 經濟와 人民生活을 犧牲시켜가면서도 軍事費만은 계속 過多할 정도로 많이 支出하고 있다.

그렇지만 <表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蘇聯의 경우 西方側과 GNP에서 8分の 1밖에 아니되는 형편에 軍備競争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無謀한 짓이다.

< 表 9 >

東西間 經濟總量 및 軍事費 比較

(單位：億弗)

區 分	世 界	西 方	東 方	參 考
① 89年 GNP (兆弗) (計)	20	美國 5.00 EC 5.00 日本 3.00 (13.00)	蘇聯 1.25 東歐 0.46  (1.71)	(8:1)
② 87年 軍事費 (億弗)	89年度 (9,500)	4,660 (北美包含)	3,169	(1.2:1)
① / ② (%)		3.6	18.5	

※ 出處：① 世界 및 西方GNP：

日本政府，89年度 世界經濟白書

② 東方側 GNP：軍事費：上掲 「동구권국가의 변혁과 갈등」

③ 세계군사비：國際平和研究所(스톡홀름)，세계일보 90.5.23，서울

그리고 北韓의 경우 韓國에 비해 GNP에서 10분의 1로 劣勢이면서 南  
侵用 武力을 強化하겠다는 것 亦是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韓國은 經濟力에서만 앞서 있을뿐 아니라 美軍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1人當 軍事費 부담이 北韓보다 훨씬 적어도 北韓과 均衡을 맞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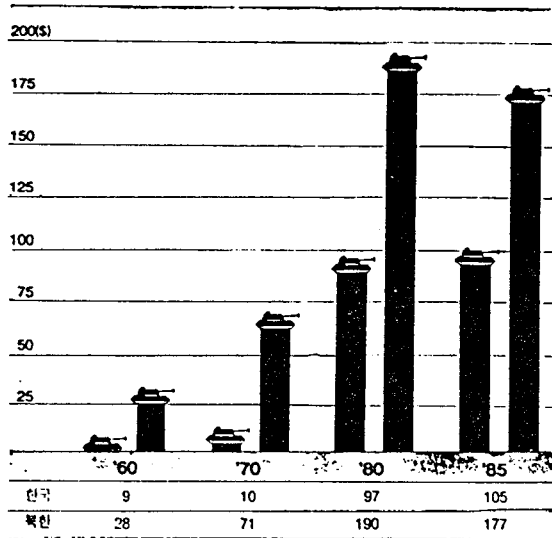
< 表 10 >에서 보는 것처럼 80年代 들어와서 韓國의 軍事費도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에 큰 壓力으로 作用하는 것 같다.

89年末 現在 南北韓의 軍事費는 92.4 億弗對 44.9 億弗로서 韓國이 約

2배로 많지만 軍事費負擔 對 GNP 比率은 4.4%對 21.3%로서 北韓은 南韓의 경쟁대상이 되지 못한다.

蘇聯 經濟學者 나탈리아 바자노프는 “蘇聯이 이웃을 엄청나게 도와주려 해도 조선반도에서 軍備競爭이 계속되고 군사대결이 유지되는 한 朝鮮의 당면한 난제들은 풀어주기 困難하다”는 것이다.

〈表 10〉 1人當 軍事費



資料 : 국토통일원

(마) 蘇聯, 東歐, 北韓의 外債 (1989)

〈表 11〉처럼 蘇聯, 東歐, 北韓은 外債를 貯가면서도 자기들의 軍事力을 強化하고 있다.

共產國중 北韓의 外債絕對額은 적은 便이다. 그러나 外債 對 GNP 比率은 32.1%로 가장 많다. 그리고 軍事費 對 GNP 比率도 23.1%로 가장 높다. 또 外債 對 輸出比率은 287.5%로 危險水位보다 몇감절 높다. 이렇게 北韓은 共產圈에서도 國際的 基盤이 가장 脆弱하다.

<表 11>

蘇聯, 東歐, 北韓의 外債・軍事費 (1989)

(單位: 億弗)

國 名	①對外債務 殘 高	②軍事費	實質經濟 成長率 (%)	①의 對 GNP (%)	②軍事費對 GNP (%)	①의 對 輸出比
東歐全體	1,168.2	316.9	0.8	29.8	8.6	
불가리아	100.0	24.6	-0.4	21.4	7.6	34.3
체코	72.2	53.6	2.0	13.8	4.1	16.0
東獨	216.5	127.5	2.0	26.7	9.8	18.7
헝가리	197.1	26.7	0.8	69.3	12.4	160.0
폴란드	404.2	43.5	-3.0	53.2	5.5	248.6
루마니아	2.0	11.3	1.7	3.6	2.0	16.3
유고	176.0	28.6	0.8	23.3	5.5	.
北韓	67.8	44.9	2.4	32.1	21.3	287.5
蘇聯	492.0	2,500.0	1.5	3.9	20.0	

※ 出處: ① 東歐: 國際金融協會 (IIF), 讀賣新聞 90. 4.17, 東京

② 上掲, 北韓經濟 綜合評價

③ 上掲, 蘇聯經濟專門家

④ 讀賣新聞 90.1.9, 東京

上掲 日本公私債研究所의 資料에 의하면 國際的 投融資 安定度는 世界 1百 個國중 韓國이 20位인데 대해 北韓은 93位로 最下位를 마크하고 있다.

北韓은 國際社會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다. 平壤駐在 蘇聯무역대표 알렉산 드로 트로티모프가 蘇聯政府機關紙 이즈베스찌아紙 (90.11.14)에 밝힌데 의 하면 北韓의 對蘇債務總額은 約 22億 3千 4百萬루블 (約 40億弗)에 달하는 데 그의 주된 理由는 北韓이 商品을 제대로 供給하지 않아 蘇聯企業들에 연쇄 파탄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91년부터 雙方間 貿易에서 物物去來式 바터貿易方式이 中斷되고 硬貨決濟方式이 실시되면 外貨없는 北韓의 立場은 더욱 難處해질 것임을 示唆하였다.

그는 91年度 雙方間的 무역총액은 약 26億 5千萬달러 (15億루블)로서 北韓의 對外 무역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北韓이 現在 필요로 하는 燃料의 대부분을 蘇聯에 依存하고 있다면서 北韓經濟의 딱한 事實을 지적하였다.

#### (바) 住民의 無氣力化와 落後性

金日成은 지난 45년 동안 韓半島에서 맑스의 理念인 社會主義·共產主義 社會를 具現하려고 北韓社會를 레닌의 一國社會主義(革命基地)論에 基礎한 스탈린식의 社會주의적인 大兵營體制로 改造하였다.

이들테면 그는 韓半島를 公산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부터 社會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북한내 모든 生産手段의 國共有化로 住民의 基本權을 根源的으로 박탈해 놓고 主體思想의 唯一化·一色化·經濟의 軍事化·社會의 閉鎖化 등으로 北韓社會를 大兵營體制로 意識化, 動員化하였다.

그와같은 教條主義的 兵營體制는 小數의 多數征服體制로 金日成의 神格化·族閥世襲化·對南侵略政策에 安성맞춤이었다.

그러나 경험은 교조주의적인 大兵營體制가 長期化되면 主體思想의 唯一化·一色化는 思想의 窒息化로 住民의 창의성을 源泉的으로 封鎖하였고, 權力의 一元化·長期化는 權力의 化石化로 족벌세습정치와 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인 새로운 착취계층을 형성하였으며, 경제의 中央集權的 계획화와 軍事優先政策은 경제의 軍事化, 산업구조의 不均衡化, 沈滯化로 住民生活의 窮乏化를 가져왔다. 또한 社會의 閉鎖化는 社會의 後進化, 국제적 고립화 및

科學・技術의 落後化등으로 안으로는 肉體勞動과 生活苦의 加重으로 社會의 動力인 住民들을 無氣力化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더우기 北韓의 경우 債務不履行등으로 밖으로도 국제신용도가 最下位를 기록하여 對南面에서는 그의 征服(統一)對象인 韓國과의 隔差를 擴大 生産시킬 뿐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人當 GNP 400弗 未滿인 在 中同胞들이 南과 北 및 中國을 비교하여 “南韓은 中國보다 30年을 앞서 있고 北韓은 中國보다 30年을 뒤져 있다”고 말하는 데서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月刊朝鮮」12月號, 1990, 서울)

### (3) 金日成體制의 方向

蘇聯의 代表的인 經濟學者 나탈리아 바지노프는 프라우다紙(90.8.6付) 寄稿論文에서 北韓의 改革, 開放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는 특히 蘇聯이나 北韓이 連繫를 맺자면 서로가 行政命令式 體制의 拘束에서 즉각 解放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럴경우 北韓은 韓國・日本・中國 및 其他 나라들의 企業들과 얼마든지 合作企業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하였다.

이와같은 蘇聯의 권유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北韓은 오히려 페레스트로이카를 “脫社會主義的 反歷史的 行爲”로 보면서 蘇聯人民을 「빈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따라 當의 戰略的 구호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면 오히려 소련의 改革・開放路線을 비판하고 있다. (「중앙방송」, 90.10.25, 평양)

그리고 노동신문(90.10.27일자) 논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과 방법의 통일적인 구현」에서는 金日成의 교시대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는

그가 기초하고 있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만큼 社會主義 建設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資本主義的 방법에 의거하여서는 解決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른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사이에 3의 길을 摸索한다고 하면서 社會主義的인 施策과 資本主義的 經濟效率을 결합시킨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이룩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現實的인 思考가 못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물론 西方側과의 타협도 거부하고 오직 主體思想이 제시하는대로 「自力更生」原則과 「우리 식」을 固守한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런가하면 北韓은 南北對話로 民族共同體를 구성, 北韓의 어려움을 풀어가자는 우리측 제의를 「反統一」的이라고 非難하면서 오히려 對南工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은 걸으로는 南北高位級會談을 통해 「平和와 統一」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남한행정을 접수하겠다는 이른바 「大事變구루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對南宣傳煽動으로 反美, 反政府 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민주전선방송은 「민족해방통일전선사업의 기본방침」제하의 방송(90.11.12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선동하였다.

즉 “民族解放 統一戰線에서는 下層 統一戰線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의 政黨 團體들 속에는 극히 반동적인 右翼 上層이 있는 반면에, 부분적으로는 진보적인 상층과 동요하는 상층도 있습니다... 下層群衆을 쟁취하지 못한 조건에서는 그 상층을 統一戰線에引入하기 어려우며 오직... 下層統一戰線을 강화해야만 반동적으로 나가려는 상층에 압력을 가해서 반동적 右翼 上層을 철저히 고립시켜 上層 統一戰線도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엄호밑에 變革運動 力量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고 그들이 동요하지 않고 反美的이며 反파쇼적인 입장에 서도



록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民族解放 統一戰線事業에서는 반드시 下層 統一戰線에 기본을 두면서 여기에 上層 統一戰線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蘇聯 言論들은 1945년 9월에 김일성이 「장군」이 아니라 소련군의 한 「대위」로서 소련군함을 타고 元山港으로 귀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北韓의 선전기관들은 김일성이 “신출귀몰, 축지법 쓰는 장수수만 병사 거느리고 백두산에 출현, 주체적 革命力量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승리전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45년 6월간 백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최후공격작전계획을 하달했으며, 8월 9일에는 총공격전을 개시할 한 명령을 내려 조국해방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였다”고 선전하였다.(중앙방송, 1990.11.25 일자)

앞에서 인용한 英國의 파이낸셜 타임즈(90.1.29)가 지적한대로 獨逸 民主主義共和國(舊東獨)이 「사라져가는 共和國」이라면 北韓은 「완전히 한물 간 政權」을 尙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北韓은 어디로 갈 것인가? 北韓의 尙方에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見解들이 있다.

첫째로 北韓은 金日成이 生存하는限 변하지 않는다는 見解(여기에는 情勢에 따라서는 金日成의 軍事的 冒險도 있을 수 있다는 見解도 包含된다)

둘째, 北韓도 改革·開放의 물결에 의해 변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 見解(여기에는 루마니아와 비슷한 사태도 包含됨)

셋째, 金日成·金正日是 自己政權 維持를 위해 部分的으로 밖에 改革할수

없을 것이라는 見解이다.

以上 세가지 見解를 檢討하기 위해 교조주의적 단계로부터 實用主義的 段階를 거쳐 民主主義的 改革段階로 移行한 앞서간 共產國家들의 變化過程에서 그 教訓을 찾아보기로 한다.

### 3. 共產圈의 實用主義的 改革과 그 限界性

#### 가. 背景

- 이미 分析된대로 레닌의 一國社會主義路線과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大兵營體制를 教條主義的으로 실시해온 나라들이 필히 當面하게 되는 교조주의적 모순은 대체로 ①. 官僚主義 橫暴 ② 企業의 非自主性 ③ 勞動者의 無氣力化 ④ 住民의 窮乏化 ⑤ 軍事費의 過多支出 ⑥ 對西方 隔差와 債務 등으로 對內的으로는 經濟的 沈滯와 混亂, 對外的으로는 國際的 落後性과 고립 등이었다. 이와 비슷한 矛盾現象은 1920 年代初 레닌의 戰時共產主義 體制에서도 나타난다.

이밖에도 東歐諸國의 경우, 東西冷戰體制下의 바르샤바軍事機構와 코메콘 經濟組織 및 베오그라드主權 制限論 等 對蘇 예측성은 各國의 政治的 自主性과 經濟的 發展 및 對西方交流 協力 等に 至大한 障礙要因으로 作用해 왔다.

#### 나. 共產 各國의 實用主義的 改革의 흐름

共產諸國의 교조주의적인 矛盾 打開(改革) 試圖를 時系列別로 보면 말하는 蘇聯의 戰時 共產主義體制 以後의 레닌의 新經濟政策(네프, 1921 年 以後)에서부터 第2次大戰 以後 티토의 「自主管理制」(유고슬라비아, 1950 年 前後부터), 나지의 「中立化 宣言」(헝가리, 1956 年), 후르시초프 「利潤制」(蘇聯, 1960 年代初), 두브체크의 「自由化 宣言」(체코슬로바키아, 1968 年) 카다르의 「社會主義的 市場經濟」(헝가리, 1968 年), 호네커의 東西獨 間「合意的 平和共存」(東獨, 1972 年), 鄧小平의 實用主義的 改革·開放(中國, 1979 年), 바웬사의 「自由勞組의 自主管理運動」(폴란드, 1980 年代初),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찌(1985年) 및 東歐諸國의 「民主化」 등을 들수있다.

그런데 이같은 共產圈의 改革運動의 目標와 方向을 現時點에서 綜合的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고르바초프는 蘇聯 共產黨 第29次 大會 報告演說에서 沈滯의 늪에 빠져있는 蘇聯經濟의 突破口로 ① 官僚機構의 簡素化 ② 企業의 自主權 擴大 ③ 勞動者들에 대한 자극 개선 ④ 個人的 活性化등 네가지 페레스트로이카의 處方을 提示하였다.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의 處方은 “모든 市民이 自由롭게 살수있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社會로 改編하기 위한 不可避한 것”이라는 前提를 갖고 있다.

蘇聯은 교조주의적 모순을 官僚主義, 企業의 非自主性, 勞動者들에 대한 無刺戟, 住民들의 無氣力化와 窮乏化 등으로 보고 이를 打開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蘇聯 共產黨 第28次 大會에서 스탈린型 社會主義 體制가 낳은 權威主義와 官僚主義를 批判시 하였다.

第2次大戰後에 나타난 모든 共產國家들이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大兵營體制를 교조적으로 模倣한 것이고 보면 고르바초프가 지적한 스탈린型 社會主義體制가 낳은 교조주의적 모순은 北韓을 包含한 모든 共產國家들이 共通的으로 姪胎한 것이라 볼수있다.

그리고 各國의 경험에서도 볼수 있지만 교조주의적 모순중 그가 가장 批判시한 權威主義, 官僚主義의 退治야말로 改革의 첫對象이라 해도 無妨할 것이다.

이같은 認識과 시각에서 共產 各國의 實用主義的 改革의 特性을 時系列 別로 보면 다음 <表 12>와 같이 集約될수 있다.

<表 12> 各國의 實用主義的 改革

年代	改革者 (國名)	基本體制			實用主義的改革		參 考
		理 念	政 治	所有制	經 濟	外 交	
1922	레닌 (蘇聯)	共產 主義	一黨 體制	國共 有制	新經 濟政 策 (NEP)	平和 共存	國共有制原則下 市場制 部分 適用 레닌原則：劣勢期間中 資本主 義 利用
1948	티토 (유고)	〃	〃	〃	自主 管理	非同盟 路線	레닌原則 適用 ○ 蘇聯 干涉 排除 ○ 官僚主義 打破
1956	나지 (헝가 리)	自由	民主	私的 所有 許容	市場 制 復活	中立 化(反 蘇)	急進主義 蘇聯軍 介入
1960 前後	후르시 초프 (蘇聯)	共產 主義	一黨 體制	國共 有制	利潤 制	平和 共存	레닌原則 適用 反對派 구데타
1968	카다르 (헝가 리)	人間的 社會主 義	一黨 體制 下共 存	私的 所有 許容	部分 的市 場制 實施	平和 共存	黨勞共存，官僚·勞動者共存

年代	改革者 (國名)	基本體制			實用主義的改革		參 考
		理念	政治	所有制	經濟	外交	
1971	호네키(東獨)	共產主義	一黨體制	國共有制	計劃經濟	平和共存	레닌原則 適用 東西獨間 合意 共存
1979	鄧小平(中國)	共產主義	一黨體制	國共有制	部分的市場	平和共存	레닌原則 適用
1982	비엔사(폴란드)	自由化	民主	混合制	勞組管理	平和共存	急進主義 - 軍戒嚴 統治
1985	고르바추프	共產主義	多黨制(黨民主化)志向	混合制	市場制	平和共存	○ 東歐諸國 解放 ○ 獨逸統一 ○ 韓蘇修交

① 레닌의 新經濟政策

1917年 불셰비키 10月 革命의 口號는 1) 모든 權力은 쏘비에트로, 2) 土地는 農民에게로, 3) 即時平和 等이었다. 불셰비키는 1918年 制定한 蘇聯憲法은 1) 土地, 鑛山, 鐵道, 工場 等 基本的 生産力의 社會化(國有化), 2)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3) 私的 利潤 排除 4) 國民皆勞(勞動의 義務化), 5) 勞動者의 經營參與, 6) 社會·教育·文化生活의 均衡, 7) 個人搾取 撤去, 階級的 差別政策 廢止 搾取者 抑壓, 社會主義 社會建設, 世界的 範圍에서의 社會主義 勝利 等의 實現을 규정하였다.

이같이 採擇된 革命課題는 土地의 社會化法令(1918. 2. 19), 勞動組合의 國家增속 및 勞動의 軍대화(1918. 4. 25), 重要産業의 國有 및 經濟的 中央集權原則 採擇, 生産物의 國家歸屬과 商業의 國有化(1918. 11. 26), 皆勞(義務等動)法令公布(1920. 1) 金融機關의 國有化와 貨幣經濟의 廢止(1920. 1. 19) 등으로 戰時共產主義 體制가 樹立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官僚主義의 擴大, 企業管理의 形式化, 勞農階層의 無氣力化 生活必須品の 缺乏 등으로 生産機能을 마비 또는 低下시켰다. 거기에 다시 戰爭後遺症까지 겹쳤다. 全體的으로는 工業生産은 1912年의 22%, 炭鑛業에서는 25%로 各各 低下되었으며 平均 戰前의 농업생산은  $\frac{1}{2}$ · 운수는  $\frac{1}{5}$ 로 各各 下落되었다. 到處에서는 農民暴動, 勞動者罷業이 發生하였고 심지어는 1917年 10月 革命當時 尖兵役割을 했던 그른슈다트 水兵들까지 反政府의 이었다. 美弗對 留弗 交換率은 1918年에 1弗當 9留弗, 1919年에 80留弗, 1920年初, 1,200留弗이었고 物價는 1913年(戰前水準)에 比해 1917年 3倍, 1918年 23倍半, 1920年 2,420倍, 1921年 16,800倍로 폭등했다. 하는수없이 1921年 3月 8日에 열린 第10次 共產黨 大會는 新經濟政策을 採擇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그에따라 비록 制限의 이긴 했지만 1921年 가을부터는 農業의 國家統制, 農作物國有制度 및 農産物의 現物稅法 廢止, 農業과 工業의 私의經管 認定 및 生産物의 自由處分, 銀行 및 市場制度의 復活·外資導入등 이른바 新經濟政策이 漸進的으로 실시되었다. 그 結果, 經濟는 計劃經濟로 부터 自然經濟로 回復됨에 따라 當時 世界와 蘇聯內에는 新經濟政策이 資本主義에로의 復舊가 아닌가 하는 觀測이 없던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1922年 봄에 있었던 第10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레닌은 「現物稅論」을 發表, 新經濟政策은 1) 國家資本主義에 充實하는 것으로서 社會主義를 完成하려는 經濟的인 前提條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며 2) 소비에트政權을 유지하여 最後의 目的을 이룩하기 위한 農民에의 양보이며 3) 대담하게 外國資本과 타협하여 經濟力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日本改造社, 「經濟學全集 第16卷 經濟政策下」 p. 451~591 參照, 1915年)

그리고 그는 1922年 平和共存論을 提起, 그것은 原則的으로 “自己들의 힘이 弱한 동안에는 平和共存路線에 따라 資本主義를 利用하여 自己힘을 키우는 한편 저들의 목덜미를 눌러야 하다”는 것이었다. (日本內閣調査室 「ソビエト年鑑」, 1957年版)

그러나 레닌은 1921年 反對派의 狙擊으로 被擊 臥病中, 1924年에 死亡하였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레닌誕生 120周年 記念集會에서 행한 「레닌에 관한 講話」에서 新經濟政策 이후를 「레닌後期」로 規定하여 그 以前의 레닌과 區分하고 있다.

레닌의 뒤를 이어 登場한 스탈린에 의해 레닌주의자들은 거의 숙청되었다. 1929년부터 소련에는 農業의 集團化, 産業의 國有化, 商業의 國營化, 軍의 優先化, 社會의 閉鎖化, 思想의 唯一化, 權力의 一元化등 이른바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대병영체제가 構築되었다.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고르바초프에 의하면 스탈린式 大兵營體制는 數10年間 絶對的 權力을 가진 最高統治者와 共產黨 권위주의에 奉仕하였다.

蘇聯의 改革派 週刊誌 「아가노크」(등불 1989.7)는 前反體制 歷史學者로 이 메드베제프의 見解를 引用, 1929년부터 始作한 스탈린의 農業



集團化와 産業國有化는 숙청작업과 함께 「人爲的·政策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1930年代初 까지만도 生産의 激減은 물론 4千萬에 달하는 肅清犧牲者를 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讀賣新聞, 1989.7.4.日本)

고르바초프에 의하면 第2次大戰以後 東歐에서 生成된 社會主義란 바로 이 같은 스탈린의 黨官僚主義體制를 移植한 것이다.

그뒤에 스탈린은 1947年 9月 코민포름을 組織, 東歐諸國을 蘇聯의 植民地化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叛旗를 든것이 1948年의 티토였다.

## ② 티토의 改革(自主管理, 非同盟)

티토의 改革은 根本的으로 레닌의 新經濟政策과 平和共存原理를 유고슬라비아에 適用하자는 것이었다.

즉 티토는 對內的으로는 「工場은 勞動者에 土地는 農民에게」라는 口號와 함께 黨, 工場, 企業所의 自主管理와 集團農場의 解體등으로 中央集權的 命令式 計劃經濟體制의 產物인 黨的 官僚主義, 권위주의의 폐단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蘇聯의 支配로부터 自主的 獨立國家로 되기위해 東西 兩大陣營間에서 레닌의 平和共存路線에 기초한 非同盟 中立國家를 標榜하였다.

거기에는 西方側 支援도 있었지만 티토의 自主管理制는 初期에는 刮目할만한 成果를 올림으로써 東西 兩陣營으로 부터는 물론 第3世界 低開發國家들부터 注目の 對象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1960年代 중반기를 限界로 점차 下向期로 접어들었다. 유고의 노비사드大學의 철학교수 겸 유고 共產主義者同盟(共產黨)中央委員會附屬 社會調査센터所長인 밀로슈니콜리치에 의하면 “自主管理制는 經營을 責任지는 工場, 企業所責任者와 各單位 職場

別行政單位, 各行政單位 勞動者들이 선출한 노동평의회등 3個 構成組織이 企業, 工場을 運營하는 制度인데 時間이 가면서 이들이 利己的으로 변해가면서 일하지 않고 俸給만 올리게 됨으로써, 工場, 企業所는 赤字運營을 면치 못하고 赤字運營을 면하려고 出庫價格을 높이면 市場은 惡性인플레로 이어져 全體的으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90. 4.10 경향신문 「自主管理制」參照)

그러나 制度的으로 보다 根本的인 것은 唯一的 支配機構인 黨의 官僚들이 形式主義, 要領主義에 익숙하여 이러한 矛盾을 바로 잡으려고 헌신적으로 努力하지 않고 無事安逸主義로 방관한다는 事實이다.

### ③ 나지의 中立化 民主化宣言 (1956, 헝가리)

當時 헝가리 總理 임레나지는 유고의 티토보다도 더 急進的인 脫蘇 反共中立化, 民主化를 宣言하며 헝가리 國民들의 전폭적인 支持를 받았지만 蘇聯軍의 介入으로 결국 그의 急進的 改革試圖는 좌절되고 그 자신도 失脚, 處刑되었다.

### ④ 후르시초프의 利潤制 (1960年代初)

후르시초프는 하르코브技術經濟大學 經濟學 教授인 리베르만의 論文 「計劃, 利潤, 價與金」(1962. 9. 9. 프라우다紙 掲載)를 土台로 中央集權의 命令式 計劃體系중 戰略的인 基本計劃만 中央에서 담당하고 戰術的이며 部分的인 計劃은 地方이나 企業에 移管하고, 企業의 活動指標로 從前의 量的 生産高로 할것이 아니라 利潤制度를 導入하여 企業의 合理化를 도모하며, 다시 이같은 企業活動을 자극하기 위해 利潤範圍內에서 상여금(프리미엄) 制를 實施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理論上 官僚主義的인 橫暴를 無事安逸主義는 물론 從業員들의 過消費慾과 인플레 현상도 抑制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官僚主義的인 壁을 打破할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官僚主義的 背景을 가진 브레즈네프의 등장으로 失脚당하고 말았다.

⑤ 카다르의 「3者平和共存論」과 社會主義的 市場論.

카다르의 「3者妥協論」(3者平和共存論)이란 첫째, 妥協을 기본으로 헝가리는 蘇聯의 安保主導權을 인정하는 대신, 蘇聯이 헝가리의 內政에 간섭하지말고 蘇聯과 헝가리는 共存하자는것, 둘째, 黨과 人民의 妥協으로 人民이 黨의 權力을 인정하는 대신, 黨은 人民의 自由와 生活을 保障하고 兩者共存하자는 것, 셋째, 黨과 官吏들간의 妥協인데 黨이 官吏들의 地位와 安定을 保障하는 대신, 官吏들은 黨의 政策을 實行하여, 黨과 관료들이 共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카다르는 이같은 條件에서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와 資本主義的 市場經濟를 결합한 社會主義的 市場經濟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또한 1968年부터는 部分的으로 復數候補制 選舉法을 導入하여 관료주의, 권위주의를 다소나마 抑制하려고 했으나 黨의背景을 가진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抑制하는 데는 큰 成果를 얻지 못했다.

⑥ 체코슬로바키아의 自由宣言(1968, 프라하의 봄)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大兵營體制가 낳은 權威主義와 官僚主義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즉 多黨復數制와 自由總選舉를 통한 議會制度와 言論自由로만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각계 各층 指導級 人士, 특히 文化人들이 주동이 된 「2000 語宣言」에 의해 內外에 선포되었다. 여기에 黨 제1서기로 選出된 두브체크는 전폭적으로 동조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急進主義的 改革은 蘇聯軍이 主動하는 바르샤바條約軍에

의해 霧散되고 말았다.

⑦ 호네커의 東西獨·合意共存論(1972年, 東獨)

東獨의 스탈린으로 불리우는 울브리히트를 追放(1971. 5)하고 黨總書記로 등장한 호네커는 東西獨 基本條約 締結(1972. 12. 21)로 東西獨間의 合意的 平和共存을 合法化시켰다.

그 代價로 호네커는 비록 교조주의자였지만 西獨의 經濟的 支援으로 東獨을 社會主義國家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역시 끝내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물결에 밀려나고 말았다.

⑧ 鄧小平型(政經分離原則下)의 改革·開放

鄧小平은 1979年 實權을 잡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黑猫, 白猫論)는 典型的인 實用主義 改革開放論으로 集團農場制(人民公社)解體, 經濟特區 設置, 外資 및 市場經濟 導入등으로 中國經濟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와같은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政治的 民主化運動이 일어나자, 天安門事態에서 본 것처럼 軍部가 武力으로 鎮壓하면서 부터 中國의 改革, 開放도 限界에 부닥치게 되었다.

天安門事態이후 中國의 實用主義的 改革 開放은 「政權分離」原則下에서만 推進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政治적으로는 「黨의 지도」, 「社會主義」, 「맑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 「階級獨裁」등 社會主義的 4大原則을 尊重하되, 경제적으로는 外資와 市場經濟制度를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概念(原則) 下에서만 導入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⑨ 바웬사의 自由勞組運動(1980, 폴란드)

中央集權的 命令式 計劃經濟體制下的 黨官僚主義的 經濟管理를 排除하고,

市場經濟體制下에 自由勞組가 自主管理하였다는 것이다.

바웬사가 영도하는 自由勞組運動이 폴란드全域으로 擴散되자 그때만해도 蘇聯軍의 介入을 우려한 야루젤스키大統領은 共產主義의 역사상 처음으로 戒嚴令을 宣布하고 軍政을 實施, 自由勞組運動을 不法化시켰다.

다. 實用主義的 改革의 限界성과 그 敎訓

#### (1) 蘇聯, 東歐羅巴의 經驗

이상과 같이 共產主義의 制度的 모순은 레닌의 戰時共產主義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그것을 「新經濟政策」으로 시정하려고 하였다.

그의 新經濟政策은 사회적 혼란과 經濟的 침체로 위기에 處한 共產政權을 유지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追求하기 위해 對內外的 資本主義的 要素를 過渡期的으로 利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닌의 新經濟政策에는, 즉 政治思想的으로는 「社會主義, 맑스 레닌主義, 당적지도, 계급독재」등 4大原則을 固守하고, 經濟的으로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骨幹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그의 部分的 缺如만을 資本主義的 方法으로 補完하자는 것이었다. 對外的으로는 資本主義 國家들의 資本과 技術 및 市場을 利用한다는 過渡期的 平和共存原則을 지킨다는 것이다.

經驗에 비추어 보면 이같은 레닌의 原則중 政治的 原則과 平和共存的 外交原則은 티토를 비롯한 모든 實用主義的 改革者들외에 일찌기 스탈린과 그의 敎條主義的 추종자들도 危機에 처할때마다 이를 適用했다는 事實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의 나지와 체코의 두브체크, 폴란드의 바웬사 등 레닌의 政治的, 外交的 原則을 초월한 急進主義者들은 蘇聯軍 또는 自國軍隊의 介入

으로 追放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밖의 經濟改革者들도 이같은 레닌의 諸原則을 지키다가 보면 결국, 軍部, 또는 蘇聯의 감시와 官僚主義的 저항으로 그들의 改革은 部分的이며 體制內的 改革이라는 限界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成果를 얻지 못하게 된다. <表 13 參照>

<表 13 >

東西歐 國家 1人當 GNP 比較

(單位: 弗)

東 方			西 方		
國 名	年度	1人當 GNP	1人當 GNP	年度	國 名
蘇 聯	88	4,798	19,800	88	美 國
東 獨	86	7,760	18,530	88	西 獨
헝 가 리	88	2,020	12,800	88	英 國
폴 란 드	88	2,070	16,080	89	프 랑 스
체코슬로비아	86	6,280	13,320	88	이 탈 리 아
루 마 니 아	86	2,400	27,260	88	스 위 스
불 가 리 아	86	3,580	15,560	88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87	2,180	20,020	88	노 르 웨 이
알 바 니 아	85	900	19,150	88	스 웨 덴
			18,610	88	핀 란 드
			18,470	88	덴 마 크
			4,790	88	그 리 스

(出處) : ① 蘇聯 : 自體發表

② 東歐圈 : 「東歐圈 國家의 變革과 갈등」, 自由評論社, 89.12.30.  
서울

③ 西歐圈 : 「世界各國便覽」, 國家安全企劃部, 90. 9. 서울

<表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以前에는 비슷한 水準이었지만 지금은 閉鎖的인 알바니아보다는 2.4 배나 높은데, 그것은 改革, 開放의 德分으로 分析될 수 있다. 그러나 第2次大戰前에는 유럽 文化圈에서 모두 비슷하게 살던 나라들이 戰後 東西로 分離되어 45年을 지내는 동안 1人當GNP에서 東歐(共產)圈은 西歐(民主)圈에 比較조차 되지 않을 程度로 미약하다. 특히 同一民族이면서도 西獨의 支援으로 東歐圈에서 最優等生으로 되었다는 東獨의 경우 西獨의 42%밖에 아니된다. 그나마도 上掲<表 13>에서 본 것처럼, 東歐는 西歐로부터 1,168 億弗(蘇聯의 492 億弗 除外)相當의 借款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비록 레닌의 原則에 기초한 東西平和共存外交로 西方側을 利用하여 자기들의 교조주의적 모순을 部分的이며 體制內的으로 改革하는 것이라해도, 西方側과 交流하는 동안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자기들도 民主的 改革과 開放 및 참된 平和共存이 必要하다는 것을 점차적으로나마 인식시켰다. 이는 오히려 西方側이 레닌의 平和共存原則을 逆利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結果라고 指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經驗은 一黨體制下에서는 어떠한 方式으로도 個人獨裁와 그의 長期執權 및 官僚主義를 청산할 수 없다는 事實上, 그것은 西方처럼 多黨複數候補制 自由選舉로 비판과 경쟁이 保障되는 民主的 議會

制度로만 可能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事實이다.

특히 스탈린主義者들이 死亡 또는 失脚되기 前까지는 絶대로 實用主義的, 體制內的 改革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2) 北韓의 경우

이같은 東歐의 경험에서 얻은 教訓으로 北韓을 조명해 볼때 지금은 비록 外部의 制約없이 오히려 外部의 권유와 支援을 받아가면서 改革·開放을 하려해도 레닌의 原則과 內部的 官僚主義 및 軍部の 抵抗 또는 壓力, 그리고 其他 後進的 要因때문에 部分的 또는 體制內的 改革밖에 할 수 없다는 評價를 可能케 해준다.

蘇聯의 北韓專門家인 알렉세이 자코르스키(世界經濟國際關係研究所 日本·韓國政治研究部 次長)은 “지난해(1989年)에 北韓의 시골은 比較的 자유롭게 돌아보고 그 궁핍상과 後進性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도 自己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있다고 믿고 있는 北韓住民들이 韓國의 繁榮을 안다는 것은 北韓體制 붕괴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金日成體制下에서는 本格的인 南北交流나 對外開放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讀賣新聞, 美, 韓, 蘇진문가에きく 「北朝鮮の 開放は 限定的」

90. 9. 22. 日本)

## (3) 金日成과 北韓體制

앞에서 인용된 자코르스키의 말은 北韓에 金日成이 存在하는 限 南北交流와 對外開放은 限定的인 것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와같은 事實은 <表 14>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共產國家의 改革·開放은 最高統治者의 去就와 直結된다는 事實을 立證하고 있다.



< 表 14 >

共產各國 改革者의 性向

國 名	改革者	執權 代數	改 革 內 容	參 考
① 蘇 聯	레 닌	1 代	新經濟政策 ( 1921 ~ )	被襲臥病死 ( 1924 )
	후르시초프	4 代	利潤制 ( 1960 年代 )	失脚 ( 1964 )
	고르바초프	8 代	페레스트로이카 ( 1985 ~ )	?
② 몽 고	오 치 바트	4 代	페레스트로이카 ( 1990 ~ )	?
③ 폴란드	야루젤스키	6 代	急進改革 防止, 體制內的 改革	
④ 헝가리	나 지	3 代	反蘇, 反共中立化 宣言	失脚 ( 蘇聯軍 )
	카 다 르	4 代	三者共存, 市場制導入	失脚
⑤ 체 코	두 브채크	3 代	自由宣言 ( 急進主義 )	失脚 ( 蘇聯軍 )
⑥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2 代 ( 最終 )	×	處刑
⑦ 불가리아	쥐 프 코프	3 代 ( 最終 )	×	失脚
⑧ 東 獨	호 네 키	2 代	東西獨共存合意	失脚
⑨ 유 고	티 토	1 代	自主管理 · 非同盟	自然死
⑩ 알바니아	알 리 아	2 代	體制內的 改革試圖	?
⑪ 越 盟	구엔 반탄	3 代	體制內的 改革試圖	?
⑫ 쿠 바	카 스트로	1 代	×	?
⑬ 中 國	鄧 小 平	3 代	政經分離 改革	?
⑭ 北 韓	金 日 成	1 代	×	?

< 表 16 > 을 要約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14 個共產國家중 改革國家數는 10 個國이고 改革中인 國家는 알바니아, 越盟 等 2 個國家이며 非改革國家는 北韓 · 쿠바 등 2 個國뿐이다.

② 歷代改革者 總數는 13 名인데 모두 非스탈린主義者들이다.

③ 改革者중 1 代 집권자는 레닌, 티토등 2 名뿐이고 나머지 11 名은 모

두 非 1代 執權者들이다.

④ 改革者중 任期滿了로 名譽退任者는 全無하고 대체로 失脚者, 死亡者들이 大部分이고(自然死亡은 티토뿐), 나머지는 未知數다.

⑤ 이상에서 金日成과 공통된 條件은 레닌, 티토 등과 같이 1代執權者란 것 뿐이다. 레닌과 티토는 金日成과 달리 非스탈린主義者들이다.

⑥ 그리고 나머지 改革者 11名은 모두 非 1代執權者들이다.

⑦ 때문에 金日成은 非스탈린의 改革과는 共通點이 전혀 없는 것으로 分析된다.

⑧ 특히 歷代改革, 開放者 13名中 退去者들의 末路는 티토의 自然死만 除外하고 大部分 失脚아니면 레닌처럼 被襲 臥病등으로 不幸하였다.

⑨ 이런 點에서도 金日成은 自己에게 危險負擔이 되는 改革을 基本的으로 피하려할 것이며 피치못할 경우, 호네커型으로 冷戰的, 對立的 共存을 止揚하고 合意的 南北共存下 또는 기껏해야 鄧小平式 政經分離型 部分改革을 시도할 可能性이 없지않다.

#### (4) 共產國家 執權 1代의 性向과 金日成

<表 17>의 共產國家執權 1代(建國者)의 性向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總 14名중 2名(레닌, 티토)만 除外하고 나머지 金日成을 包含한 14名은 스탈린主義 信奉(非改革)者들이다.

② 總 14名중 레닌등 5名을 除外한 나머지 9名은 18年이상 長期執權者들이며 특히 金日成은 45年間 最長期執權者다.

③ 現在任者 金日成, 카스트로 등 2名을 除外한 退任者 12名중 라코시(헝가리, 1956年 군중 봉기)와 울브리히트(東獨, 1971年 쿠데타)등 2

<表 17>

執權 1 代의 性向과 金日成

國 名	革 命 1 代	執權 期 間	改 革 與 否	退 去 樣 式		參 考
				死 亡	失 脚	
① 蘇 聯	레 닌	7 年	○	○		新經濟政策
② 폴 렌 드	비 에 르 크	7	×	○		
③ 헝 가 리	라 코 시	4	×		○ (군중봉기)	
④ 체 코	고 트 윌 드	5	×	○		
⑤ 루마니아	게오르기데지	18	×	○		
⑥ 불가리아	리미트로프	4	×	○		自主管理制
⑦ 동 독	올브리히트	22	×		○ (쿠데타)	
⑧ 유 고	티 토	36	○	○		
⑨ 알바니아	후 자 크	44	×	○		
⑩ 쿠 바	카 스트로	30	×		(在任中)	
⑪ 월 멩	호 지 명	24	×	○		
⑫ 몽 고	초 이 발 산	20	×	○		
⑬ 中 國	毛 澤 東	27	×	○		
⑭ 北 韓	金 日 成	45	×		(在任中)	

名은 失脚하고 나머지 10名은 死亡(終身)型으로 末路를 마쳤다.

④ 여기서도 金日成은 스탈린主義固守(非改革)者요, 最長期執權者로 分類되는 등, 共產國家 執權 1代의 標本으로 分析된다.

⑤ 다만 非스탈린主義로 轉換時에 限해서만 레닌, 티토처럼 改革者로 變身할 수 있을 뿐이다.

(5) 레닌·티토·金日成 比較

<表 18>과 같이 레닌과 티토처럼 金日成도 改革者가 되려면 다음 要

件들을 갖추어야 可能하다.

① 우선 住民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는데 金日成의 경우 形式上 建國者요, 執權 1代로 家父長的 統治經驗의 풍부등 레닌과 티토에 못지않은 카리스마의 지도자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決心만 있다면 北韓의 改革은 어렵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가지 問題點이라면, 그에게는 改革 開放時 자신의 秘密이 탄로되어 抗日빨치산神話와 主體思想으로 神格화된 그의 카리스마가 一朝에 붕괴될 것을 念慮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② 改革, 開放變數중 重要的 것은 改革의 痛的 存在인 교조주의적인 당관료층과 軍將星등 抵抗勢力 形成期間인데 레닌과 티토가 改革될때에는 그 期間이 不過 5年정도로 밖에 아니되었지만 金日成은 45年동안 뿌리를 내린 北韓內 官僚層과 軍部가 큰 問題로 된다.

③ 對外關係에 있어 레닌이 平和共存論과 티토의 反蘇的 非同盟路線은 비록 과도적인 기만술책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때만해도 생소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매력적 要素도 있었기때문에 第3世界 나라들로부터의 支持는 물론 西方側으로부터도 어느정도 支持를 받았다. 그러나 金日成의 경우, 平和共存이란 用語는 아예 입에도 담지않고 非同盟外交만 強調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人氣品目도 못될뿐더러 對外閉鎖政策과 國際的 信用度 추락등으로 그어느때보다도 고립상태에 있어 레닌 및 티토와는 比較도 아니된다.

④ 레닌과 티토는 各己 강력한 革命力量과 카리스마 및 독특한 統一戰線戰術로 「先聯邦構成, 後改革・開放」했지만 金日成의 경우 南韓에 비해 對南 劣勢 등으로 「先聯邦, 後改革・開放」하기에는 條件이 맞지 않는

것이다.

⑤ 때문에 金日成은 레닌 또는 티토와 같은 改革·開放者로 될 수 있는 與件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⑥ 金日成이 갈길은 비록 時限的이나마 호네커型 또는 鄧小平型 아니면 차우셰스쿠型밖에 따로없는 것으로 分析된다. 앞서가는 蘇聯, 東歐諸國에서 밀어닥치고 있는 改革·開放의 물결은 北韓을 例外로 놔두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 4. 蘇聯·東歐圈의 改革·開放과 教訓

### 가. 페레스트로이카의 背景과 評價

蘇聯의 이즈베스찌아紙의 評論員 알렉산도르 보비는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이 나오게된 背景으로서 스탈린의 이름과 結付된 「軍隊式 社會主義」나라들이 共通的으로 안고있는 諸矛盾, 즉 “經濟의 非效率, 科學技術의 顯著한 낙후, 國民各層의 要求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物資不足, 社會的 上層部에 앉아 指令만 내리는 巨大한 官僚機構, 民主主義 缺如, 社會道德의 低下, 冷笑, 政治無關心, 社會主義 理想에 대한 失望 擴散, 執權黨인 共產黨의 권위와 政治的 影響力の 弱化”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1950年代 初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者들은 스탈린의 抑壓과 官僚主義的 囹圄에 勇敢하게 抵抗, 非中央集權的 市場經濟를 回復할 수 있는 「自主管理制」를 創始하여 社會主義的 矛盾을 시정하려 했고 다른나라들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해보았다. 그렇지만 結局, 강력한 官僚主義的 上層構造의 存在로 改革은 중단되고 말았다는 事實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오늘 東歐는 이러한 實用主義的 限界를 克服,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具現하기 위한 페레스트로이카政策에 呼應하여 踴기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每日新聞, 「ペレストロイカの窓」, 1989.6.30. 日本)

이와같은 알렉산도프 보비의 見解는 그 本質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指摘해온 것과 脈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蘇聯과 東歐에서는 스탈린式 교조주의적 모순(殘滓)을 除去하려고 實用主義的 改革을 試圖해보았지만 官僚主義와 軍部 등 外部의 抵抗要素와 소련의 軍介入 등 外部의 干涉으로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保守主義者들이나 蘇聯指導部가 뚜렷한 代案을 提示하는 일도 없었다. 그저 沈滯와 展望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격이었다.

그러던 중 고르바초프가 提示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씨는 「가슴에 소나기」格으로 비록 그 代價는 컸지만 달리 代案없는 蘇聯과 東歐는 그에 呼應하여 쫓기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北韓의 位上에는 適用되지 못할런지 모르나 概念的·理想的·思考面에서는 教訓으로 되는 要素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理想的·階級的 利益보다는 現實的·人類的 次元의 利益을 앞세우는 新思考는 더 말할 것도 없고 改革, 開放戰略·戰術에서 그의 明白한 方向 提示와 대담한 決斷力은 높히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 나. 페레스트로이카의 目標와 新思考

고르바초프는 蘇聯共產黨 第28次大會에서 그가 지향하는 社會를 “自由人들의 市民社會가 스탈린式 社會主義에 代替하는 이른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社會”임을 明白히 하였다. 특히 그는 黨大會 演說文속에서 「福祉社會」, 「福祉國家」라는 用語를 많이 했으며, 평소에도 스웨덴式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에 관심을 表明했다.

요컨대 페레스트로이카의 內容과 戰略·戰術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① 政治的으로는 스탈린式 社會主義의 殘滓인 「權力的 化石」(一黨體制, 長期執權, 權威主義, 官僚主義)는 「民主主義」로 一掃하는데, 그것은 前統治者의 追放, 多黨制 導入, 自由總選舉를 통한 民主政府 樹立 등으로 實現한다.

② 經濟의 沈滯要因(國公有別,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와 自給自足體制, 黨的管理, 軍需 優先主義, 企業의 예측성, 勞動者들의 태만과 무기력화, 住民의 窮乏化에서 벗어나기 위해 市場制度를 活性化하고 私的 所有 認定, 個人企業 許容, 自由競爭制度 保障, 軍縮, 民需用品 增産, 外資, 技術導入 등으로 促進한다.

③ 社會·文化·思想의 질식화 현상은 社會의 自由化로 解放하되, 그 內容은 言論, 出版, 結社, 集會, 宗教, 旅行등의 自由化로 保障한다는 것이다.

④ 對外 閉鎖化(科學, 技術의 落後化, 國際的 孤立化 등)은 開放化로 代替하되, 그 內容은 얄타(冷戰)體制를 止揚하고 平和共存, 國際交流, 分業등 協力으로 施行한다는 것이다.

#### 다. 共產圈의 推進 現況

1988年 3月 고르바초프의 「新베오그라드」宣言을 계기로 東歐諸國에서 는 脫蘇, 反體制, 自主民主化運動이 일기 始作하였다.

이듬해 1月부터 헝가리, 폴랜드를 先頭로한 民主化의 물결은 점차 東歐全域으로 波及, 스탈린式 社會主義政權들이 崩壞되기 시작하였다.

共產圈에서 일어났던 改革動向을 整理해 보기로 한다.

① 알바니아, 越盟, 中國, 北韓 등 5個國을 除外한 8個國은 指導者들이 交替되고 多黨民主制下 市場制로 改革되었다.

東獨의 경우 民主化와 더불어 西獨에 吸收統一되었다.

② 指導者가 交替되지 않은 5個國중 中國, 베트남, 알바니아 등 3個國은 實用主義的 體制內的 改革을 進行하고 있다.

③ 北韓의 金日成과 쿠바의 카스트로만이 아직도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兵營體制를 固守하고 있다.

④ 改革, 開放은 指導者의 交替로만이 이루어진다는 事實을 알수 있다.

## 라. 獨逸統一 및 페레스로이카의 核心 고리

獨逸統一經過를 살펴볼때, 獨逸統一의 要訣에는 ① 蘇聯, 특히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

② 東獨의 독재자를 먼저 除去했으며

③ 東獨의 民主化를 이룩했다는 것

④ 民主西獨의 經濟力이 呼引力이 되었다는 事實 등이라고 할수 있다.

이같은 獨逸의 統一過程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 적지 않다.

한편, 고르바초프의 다음 演說內容들은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大兵營體制를 解體하려면 最高司令官格인 獨裁者의 交替가 核心고리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첫째로 차우셰스쿠에 대한 不信 演說을 들수 있다. 1987年 5月 26日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訪問時 全國에 中繼된 大衆演說을 통해서 차우셰스쿠의 毒벌정치를 批判하였다. 그것은 차우셰스쿠에 대한 反族閥體制의 분위기를 고무시킨 것으로 分析되었다. (每日新聞, 고르바초프의 루마니아 訪問 關聯記事, 1987.5.27)

둘째로, 新베오그라드宣言( 1988.3. 유고)이다. 고르바초프는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를 訪問하면서 蘇聯·유고 共同宣言을 하였다. 이를 통해 1968年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侵攻을 正當化시킨 브레즈네프의 「制限主權論」의 오늘을 認定함과 함께 社會主義 建設의 多樣性を 認定하는 한편, 各國의 獨立과 主權을 尊重한 것을 宣言함으로써 東歐諸國의 改革者

들의 改革意志와 信念을 크게 자극하였다. 마침내는 그것이 各國에서 스탈린主義者들을 追放하고 獨自의인 改革을 實施하게된 기폭제로 作用하였던 것이다.

세째로 호네커(東獨)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辭退 중용이다.

西獨의 「비르트」紙( 89.10.22 )는 1989年 10月 7日 獨逸民主共和國, (東獨政權) 創建 40周年 記念式에 參加했던 고르바초프가 「獨逸社會主義統一黨」(東獨共產黨) 政治局員들과 會同한 자리에서 호네커의 健康을 理由로 “그가 黨을 領導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發言한 것이 호네커의 辭任을 促進시켰다고 報道한 일이 있다. 日本產經新聞( 1989. 10. 23 )도 “호네커退陣,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한마디가 促進시켰다”고 傳한바 있다.

## 5 . 結 言

1917年 10月 러시아의 共產主義政權이 樹立된 이후 오늘까지 70餘年間 共產主義 體制의 變化過程은 「社會主義的 教條主義段階」, 「社會主義的 實用主義段階」(또는 社會主義的 體制內的 改革段階),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志向段階」로 分類할 수 있다. 北韓은 13個 共產國家중 쿠바와 더불어 아직도 社會主義的 教條主義段階, 즉 스탈린式 社會主義的 병영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었다.

이같은 教條主義的인 諸矛盾이 蓄積됨으로 해서 北韓은 이미 오래전부터 沈滯狀態에 빠져 있다. 北韓의 改革은 自己生存을 위해서도 不可避하다.

그렇지만 經驗은 北韓이 社會主義的 實用主義段階로 되 치못해 改革을 한다해도, 스탈린主義者인 金日成, 金正日이 存在하는 限 극히 부분적이며 體制內的인 改革밖에 할수 없을 것으로 分析되었다.

따라서 北韓에서 東歐式 改革·開放을 기대하거나 韓半島에서 獨逸式 統一을 이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수 밖에 없다.

東歐의 改革과 獨逸의 統一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示唆해주고 있다.

즉, 東歐의 改革과 獨逸의 統一에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거의 絶對的인 役割을 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의 要點은 먼저 스탈린主義式 獨제자들을 追放하고 다음으로 多黨複數制에 의한 民主的 改革과 開放의 市場制度 導入으로 官僚主義와 權威主義를 清算하고 住民을 解放하며 企業을 活性化한다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展開過程과 그 經驗은 우리에게 教訓化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



# 北韓體制的 對內外的 變化 要因과 變化 方向

鄭 樂 重

日本쯔꾸마大 教授

## 目 次

- I. 序 論
- II. 北韓體制的 對外的 變化 要因
- III. 北韓體制的 對內的 變化 要因
- IV. 向後 北韓體制的 變化 方向
- V. 結論：우리의 政策方向



# I. 序 言

## 1. 研究目的

1980년대 중반以後 國際政治體制는 美·蘇間 中距離 戰略核武器(INF) 감축협정의 체결을 시작으로 알타 체제에서 새로운 데탕트 체제로 급격한變化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이와같은 世界秩序의 變化는 蘇聯과 東歐에서 부터 시작된 改革·開放의 바람이 유럽을 넘어 世界를 包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改革·開放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東北亞 국제질서에도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여 東北亞 국제질서도 역시 脫冷戰的 체제로 변화되어 왔다. 韓國은 이와같은 國際秩序의 變化에 副應하여 과거의 제한적 外交政策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全世界的인 次元을 지닌 北方政策을 추구함에 따라 東北亞 國際環境의 主體로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韓國은 20세기 冷戰의 마지막 遺産인 韓半島의 지역정세에 새로운 상황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이 결과, 北韓은 冷戰時代의 국제관계에서 누릴 수 있었던 대내적 閉鎖政策 및 對南革命鬭爭 路線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소련의 對韓修交는 獨逸統一로 시작된 冷戰 분계선 崩壞가 이제 한 반도에서도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韓·蘇間의 國交樹立은 전후 한반도 分斷의 당사국이면서도 그 北韓의 主權만을 인정하는 오류를 고집해 온 蘇聯이 南과 北에 다같이 主權의 實體가 存在한다는 점을 공언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金日成 體制는 엄청난 국제질서의 變化에 對

應하여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金日成은 급격한 정치적 變革에 따른 蘇聯 및 東歐諸國의 체제이탈 현상이 北韓體制에 줄 波及效果를 극소화하기 위해 對日本 國交樹立과 같은 새로운 戰略을 樹立하고 단계적인 政策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北韓의 體制는 외형적으로 크게 變化되고 있지 않지만, 尙後 이러한 金日成의 諸措置는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北韓體制의 급진적인 變化를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東南亞 국제질서 再編의 한 당사자인 韓國은 한반도의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北韓體制의 變化 可能性을 진단하고, 이에 적절한 政策方向을 樹立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本論文은 이와같은 우리의 당면한 政策樹立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 2. 研究範圍 및 方法

本論文은 北韓體制의 變化에 따른 우리의 政策樹立에 필요한 代案을 提示하기 위해 국제질서의 再編 以後 현재까지 北韓體制 對應과 장래의 變化可能性을 예측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體系理論에 입각해 국제정치 질서의 變化, 특히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變化가 北韓의 政治體制에 어떠한 反應을 야기시키는 지를 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政策方向을 제시코자 하였다.

따라서 本論文은 第I章에서 北韓體制의 對內的 變化要因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北韓의 政策變化를 第III章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第III章에서는 北韓體制의 對內的 變化要因과 이에 대한 金日成의 對應戰略을 고찰하였다.



第Ⅳ章에서는 이와같은 國內外的 變化要因과 北韓의 政策變化를 종합하여 向後 北韓體制 變化를 金日成의 權力承繼 以前期와 金正日 權力承繼 以後期の 變化를 展望함으로써, 第Ⅴ章에서 이에 對應하는 우리의 政策方向을 提示 하고자 했다.

## II.北韓體制的 對外的 變化 要因

### 1. Gorbachev의 新思考 外交政策

고르바초프는 1985年 3月 黨書記長 就任以後 蘇聯의 國內경제 및 정치체계의 全般的 改革(Perestroika)과 가속적인 發展戰略을 추구해왔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政治的 思考’로 알려진 世界觀에 입각하여 蘇聯의 外交政策에 대한 전반적인 再調整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太平洋地域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고르바초프가 新思考 外交政策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 추진배경은 크게 세가지 次元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 (1) 고르바초프의 世界觀 變化

고르바초프는 蘇聯의 國內經濟 沈滯와 世界共同體 속에서의 政治的 고립을 인식하였다. 그는 이와같은 위기의식에 따라 蘇聯 經濟를 發展시키고 전반적인 國力을 增進시키기 위해, 國內의 經濟·政治的 改革을 통해 군사적 資源을 民間産業, 農業, 尖端技術 分野로의 이전 등을 促進시키려는 決定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國內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교적 緩和된 國際環境을 필요로 했다.

무엇보다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政治的 思考’로 蘇聯體制가 當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즉, 그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世界와 국제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에 의하면 ‘새로운 政治적 사고’는 “核戰爭이 政治적 目的의 해결을 위한 手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와 더불어 人類의 生存이 중

요하다는 基本的인 전제가 깔려있다. ‘새로운 정치적 사고’에 의한 世界觀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核戰爭 不可論이다. 고르바초프는 核武器의 가공할 破壞力으로 인해 核戰爭이 일어날 경우, 인류가 전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認識은 “우리는 地球라는 하나의 배에 탄 乘客이다. 核戰爭은 정치적 目標건 經濟的 目標건 이데올로기적 目標건 혹은 그밖의 다른 目標건간에 어떠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된다는 原則이다”고 주장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蘇聯은 1950年代 중반이래 核戰爭이 일어날 경우 崩壞될 것은 資本主義社會뿐이며, 核戰爭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社會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核戰爭이 理念과 體制의 차이에 관계없이 全人類의 生存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종전의 입장을 수정하였다.

둘째, 軍備擴大競爭의 止揚이다. 고르바초프는 核戰爭의 가공할 破壞性에도 불구하고 “美·蘇兩國은 지구를 몇번이나 전멸시킬 수 있는 核戰力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이상의 軍事力을 建設, 유지하기 위해 國力을 소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縮小指向的 戰略均衡의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그는 核軍備競爭이 ‘勝算없는 競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관계를 교란하고 核의 대결을 유발할 수 있는 극한에까지 도달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軍備競爭을 통해 社會主義를 破폐시켜, 자기네가 提示한 條件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政策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蘇聯 經濟와 技術의 落後狀態 脫皮이다. 西方先進國은 이미 ‘情報社會’, ‘後期資本社會’로 이행중에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蘇聯도 落後된 經濟, 技術水準을 向上시켜 이 제 3의 물결에 편승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蘇聯은 美國과 戰略的 均衡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社會的 基盤은 沈滯狀態에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침체 일로에 있는 經濟가 回復되지 않는한 蘇聯은 強大國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危機意識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國際社會의 多極體制로의 이행이다. 國際關係가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體制下에서 세계각국은 協力, 共存해야 하고 自國의 일방적 의사를 강요할 수 없다. 세계는 부단히 變하고 있으며, 國際秩序의 現狀維持는 지속하기 不可能하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당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간에 利益의 均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勢力均衡’ 대신에 ‘利益’이 지배하는 國際社會에서 蘇聯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蘇聯의 모델을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각국의 獨自성과 사회주의 진영의 共通된 利害關係를 조화시켜 나가는 데 注力할 必要性을 認識하였다.

다섯째, 核時代에 世界는 하나의 地域共同體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는 相互依存的인 ‘하나의 세계’를 持向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人類文明의 장래에 결정적인 影響力을 가진 문제와 局地的인 문제를 국제적인 協力を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促求하였다.

특히 그는 世界資源의 合理的 利用을 위한 效果的인 장치가 國際的으로 마련될 必要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와같이 새로운 思考 (novoe myshlenie)에 입각한 政策基調로서 ① 資本主義와의 平和共存, ② ‘絕對安保’를 ‘共同安保’概念으로 수정, ③ 國際階級鬭爭論의 廢棄, ④ 防禦的 戰略概念의 採擇, ⑤ ‘相互依存的 綜合世界’에의 參與 혹은 革命的 變化, 軍備減縮, 군사개입의 止揚, ‘새로운 유럽질서’의 確立, 形式과 妥協에 의한 世界政治의 補完 등을 강조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新思考 정치에 입각해 美·蘇和解, 中·蘇和解 과 새로운 對東北亞政策 및 對韓政策에 根本的인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 (2) 아시아·太平洋地域의 政治·經濟的 環境의 變化

最近 몇십년간 아시아·太平洋地域은 중요한 戰略的 位置, 豐富한 資源下에서 經濟 및 政治에 있어서 꾸준히 그 중요성을 증대시켜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은 美·蘇間 地域的 競爭의 戰略的 중심지가 되어왔다. 經濟的으로 아시아·太平洋地域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可能性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亞·太諸國은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率을 기록했다. 1960年代 同 地域의 GNP는 전세계 GNP의 5.5%를 차지했으나, 1980年代 同 地域은 16%를 점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23.1%의 比率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86年과 1987年에 世界經濟의 年平均成長率은 각기 3.2%, 2.8%정도였으나, 同 地域의 平均成長率은 각각 4.2%, 6%에 달했다.

정치적으로 亞·太地域은 多極化趨勢가 점차로 부각되고 있으며, 同 地域에서의 政治的 霸權은 급격히 變化하고 있다. 中國은 獨立自主外交戰略을 천명하고, 國際政治에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日本은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경제세력에서 政治勢力으로의 轉換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지역의 4小龍으로 불리는 韓國, 臺灣, 싱가포르, 홍콩 등은 同

地域에서 新興産業國家로 부상하고 있어, 美·日·中·蘇 및 이들 新興工業國家들은 世界的인 문제에 막강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同 地域의 經濟·政治的 狀況의 變化는 蘇聯指導者들에게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르바초프는 아시아·太平洋地域이 “새로운 政治·經濟的 競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世界的 戰略에서 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역의 문명은 經濟的 vitality를 증대시킴으로써 부각되고 蘇聯은 전세계의 거의 半을 차지하는 이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言及했다.

蘇聯이 이와같이 政策의 轉換을 시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蘇聯은 종래 과도한 對亞·太地域 軍事膨脹政策과 관련, 아시아·太平洋國家들에게 威脅의 對象이 되어왔다. 이로 인하여 이 地域에서의 蘇聯의 政治·外交的 影響力 행사가 制限됨으로써 蘇聯의 軍事膨脹戰略이 對亞·太地域進出에 최대의 障礙要因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蘇聯은 미국의 經濟·政治的 影響力 증대, 日本의 經濟力의 浮上, 中國의 重要性 增大가 이 지역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계속 弱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이를 是正하기 위해 和解와 實利를 바탕으로한 對亞·太 接近의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

### (3) 極東 시베리아開發의 必要性

현재 蘇聯의 産業 및 鑛物資源의 地理的 배치는 不均等하다. 産業의 83%가 유럽과 우랄지역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에 鑛物資源의 60 - 80%가 埋藏된 (極東)시베리아地域은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 현재, 유럽지역의 석유자원은 거의 고갈상태에 있으나, 석유 및 天然가스의 2/3가 현재 시베리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蘇聯은 가속화된 發展戰略을 促進시키기 위해 極東·시베리아地域을 개발해야 하는 절박한 狀況에 처해 있다. 蘇聯指導者들은 시베리아·極東이 21세기 經濟的 土臺로 인식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5年以後 시베리아·極東地域을 2차례 방문하면서 시베리아·極東地域의 중요성과 役割을 강조했다. 그는 極東과 시베리아의 開發이 상당한 정도로 蘇聯經濟의 成長率과 效率性을 決定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蘇聯 國力의 증강을 위한 確固한 기초를 다지고자 했다.

蘇聯은 極東을 개발하기 위해 아시아·太平洋地域의 거대한 시장과 西歐 및 아시아·太平洋諸國으로부터의 投資와 技術을 必要로 하고 있다. 蘇聯은 이러한 기본적 발상에 입각해 특히 日本의 資本과 技術投資를 必要로 했다. 따라서 蘇聯은 既存의 아시아·太平洋政策을 수정하여 東北亞地域의 平和로운 國際環境 조성에 努力하였다. 즉, 新思考 外交政策에 입각한 아시아·太平洋 外交政策의 재조정이 必要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蘇聯은 세계적 차원의 美·蘇 신데당트를 追求하고, 中·蘇間의 관계개선,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追求하고 있다.

## 2. 東北亞 戰略環境의 變化

제 2차 대전이후 지속되어온 알타체제의 崩壞와 美蘇和解에 바탕을 둔 國際情勢의 變化는 必然的으로 東北亞 戰略環境에 變化를 가져 왔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變化要因은 蘇聯과 中國간의 급속한 關係改善이다.

89年 5月 고르바초프의 中國訪問과 90年 4月 李鵬 中國總理의 蘇聯 방문은 양국이 理念的으로 크게 對立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라가 처한 심각한 國內問題때문에 對立보다는 和解와 協力이 必要하다는 실리적 판

단에서 이루어졌다.

양국은 理念問題에 대해서, 社會主義에는 의무적인 모델이 없으면서 각자의 노선에 대한 理念論爭을 회피했다.

李鵬은 모스크바방문 첫날 리즈코프가 主擧한 歡迎晩餐에서의 演說을 통해 「中國과 蘇聯은 현재도 다같이 社會主義國家」라고 전제한뒤 “두나라는 特定問題에 대한 국가적인 狀況이 다르다”고 말했다.

蘇聯側의 견해를 代辯하는 官營 타스통신도 양국지도자들이 最近의 改革問題에 대해 대체로 言及을 회피하는 態度를 취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中·蘇兩國은 자신들의 政治改革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維持한 채, 이에 관한 直接的인 見解 피력을 회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인 困難을 겪고 있는 두 나라는 이처럼 不必要한 理念對決을 회피하면서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 많은 合의를 했다. 양국간에 체결된 協定만도 모두 6個로 李鵬은 리즈코프와 「經濟-科學-技術長期協力 發展計劃」 「우주의 平和的 使用과 研究에 관한 協力協定」등 2個協定에 서명했으며, 外交部長 錢其琛은 세바르드나제와 「국경지대減軍 및 군사분야 信賴強化協定」, 「兩國外務長官間 政治協議協定」등 2개 協定에 서명했다.

또 中國對外經濟貿易部 副部長 李嵐清과 蘇聯對外經濟長官 콘스탄틴 카투셰프간에는 「중국의 對蘇 生必需品供給協定」, 「蘇聯의 對中國 核發電所建設支援協定」 등이 체결되었다.

아시아 社會주의 강국인 中國과의 관계 정상화로 아시아 진출의 安定的 기반을 確保한 蘇聯은, 日本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地域 國家로의 진출 발판으로서 韓國과의 關係正常化를 진척시켰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美·蘇 新 데탕트와 아시아지역에서의 中·蘇 和解를 바탕으로한 蘇聯의 對韓修交는



蘇聯의 아시아 外交의 凱歌인 동시에 韓國의 北方政策의 結實이다.

蘇聯은 이제 韓·蘇關係를 바탕으로 日本과의 關係正常化를 積極 推進하면서 아시아국가로서 亞·太地域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蘇聯의 아시아政策은 東北 아시아 國際關係의 재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韓·蘇 修交가 끼친 東北亞 국제관계에서의 파문은 결코 작지 않다. 中·蘇關係의 정상화, 韓·蘇 수교를 시작된 이러한 東北아시아 兩者的 國際關係의 조정은 멀지않은 장래에 日·蘇關係正常化 및 北韓의 對美·日關係 改善 등으로 必然的으로 이어지면서 既存의 東北亞 國際秩序를 급속도로 재편성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蘇聯이 배제되어 있던 東北亞 國際關係가 蘇聯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새롭게 構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韓·蘇修交에 대한 地域國家들의 對應은 매우 複雜할 것으로 보인다.

韓·蘇 정상회담이 美國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美國의 입장을 象徴적으로 代辯하고 있다. 蘇聯의 積極的인 아시아 이니셔티브가 진전되고 있는 狀況에서 美國은 東北亞地域의 事態發展을 뒷집지고 관망만을 할수 없었던 것이다.

종래 美國은 東北亞에서 韓·美·日 安保體制와 中國과의 이른바 戰略的 協力關係를 중심으로 對蘇 封鎖政策을 推進하여 왔으나,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既得權은 最近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최대의 同盟國 日本은 對蘇關係를 점차 증대시키고 있으며,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이미 美國의 影響力 밖으로 점점 벗어나고 있다. 中國은 蘇聯과 關係를 정상화하였으며, 韓國의 北方政策은 동구에 이어 몽고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韓國을 傳統的인 反共보루로 인식하여 온 美國은 韓·蘇修交

를 歡迎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修交가 사실화되었다. 그러므로 美國은 東北亞에서 새로운 權力均衡을 도모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장기적으로 美·蘇의 勢力均衡아래 平和共存을 도모하는 것이며, 地域國家들과의 相互協力과 相互依存을 擴大하는 方向이다. 따라서 美國은 東北亞 國際秩序의 再編成過程에 積極 개입함으로써 美國의 既得權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韓·蘇修交를 積極 주선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은 經濟力에 相應하는 政治大國으로 成長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어 韓·蘇修交를 계기로 北韓 및 蘇聯과의 關係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東北亞 국제질서에서 日本의 政治的位相은 日本의 經濟力을 감안할때 과거 어느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北韓 關係는 더욱 밀접해질것이나 中國은 天安문사태 이후의 혼란과 정돈상태를 극복하고 개혁·개방 노선을 부활하고 있어 對美·日關係를 發展시키는 한편, 韓國과의 關係改善도 점차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北韓의 反應이다. 韓·蘇修交는 동구권의 경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韓蘇修交에 대해 北韓은 蘇聯의 行爲를 背信으로 규정하고 強硬하게 非難하면서 中國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기존의 對蘇關係는 결국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北韓은 향후 美·日 등 西方國家들과의 關係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그것이 韓·蘇修交로 인해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3.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變化

90년 10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韓國과 蘇聯간의 修交는 韓·蘇關係 및 韓半島 分斷史의 일대 變化를 예고하는 대사건이라 할 수 있다.

韓蘇修交는 그 자체가 갖는 歷史的 상징성뿐 아니라, 그 결과가 장차 韓半島 주변에 물고을 波長 또한 엄청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韓蘇修交의 징검다리 役割을 한 盧·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頂上 會談 과정에서 蘇聯側은 北韓과의 사전협의를 일절 배제한 것으로 確認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韓半島 주변 力學構造 및 東北亞 情勢의 방향과 관련, 적지않은 시사를 던져주는 것이다.

蘇聯의 이러한 자세는 強硬閉鎖路線으로 더욱 치닫고 있는 現北韓政權에 대한 최대의 外交的 壓力인 동시에, 어떻게든 北韓을 世界潮流에 맞춰 개방시키겠다는 고르바초프의 強力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노출 돼 왔던 蘇·北韓간의 불화를 다시한번 입증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蘇·北韓關係는 불편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것임을 展望케 해준다. 지난 85年 3月 서기장 취임이후 고르바초프가 金日成을 만난것은 지난 86年 10月 단 한차례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金日成의 자세변화가 담보되지 않는한 蘇·北韓간의 정상회담같은 것은 앞으로도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蘇·北韓關係의 괴리 심화와 韓蘇關係의 급진전은 韓美對 北韓·蘇聯의 兩極對決 구조로 오랜세월 등식화되어 왔던 이지역의 冷戰構圖가 마침내 解氷의 단계에 접어 들게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하다.

韓半島가 戰後 冷戰體制의 마지막 遺産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韓蘇修交는 前戰 冷戰史에 마지막 終止符가 찍혀지는 상징적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蘇聯의 빠른 「對韓接近」은 中國으로서도 더이상 北韓의 「閉鎖」를 보호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對北 背後勢力의 軌道離脫은 北韓의 國際的 孤立을 가속화 시킬 것이나, 北韓·蘇聯간의 “血盟關係”로 이어져온 兩國關係의 단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蘇聯은 經濟協力問題 以外에도 北韓에 대한 軍事協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韓半島 平和定着의 차원에서 韓國과의 關係接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대신 韓國을 選擇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蘇聯은 韓蘇 關係正常화를 자신의 改革 開放政策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韓半島에 緊張을 조성하면서 核安全協定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北韓에 대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물론 蘇聯이 韓國과 關係正常화를 이루더라도 北韓이 蘇聯의 影響圈에서 아주 離脫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실제로 北韓外債의 80%가 對蘇外債이며 무기체계, 원유, 原子力技術의 대부분을 蘇聯에 依存하고 있다. 이점을 잘 알고있는 蘇聯은 北韓이 처음에는 強力하게 반발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閉鎖體制를 더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蘇聯의 「韓半島構圖」속으로 끌려들어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蘇聯이 北韓體制를 구성하는 기둥인 北韓의 主體思想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韓蘇修交와 對北韓 經濟的 壓力과 더불어, 東北아시아에서 蘇聯의 새로운 秩序構築에 北韓이 증대한 障礙物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北韓에서 主體思想에 입각한 金日

成=首領,父子世襲의 論據는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에 의한 北韓地域解放과 美帝國主義의 北侵을 打勝하고 主體祖國인 北韓을 수호한데 있다는 것이다. 즉 主體時代에 主體思想에 입각한 社會主義 完全勝利를 가져다줄 방도인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 革命을 金日成이 抗日武裝鬪爭을 통해 몸소 실천하여 北韓地域을 解放(北韓은 蘇聯에 의한 北韓 解放을 부인하고 있음)시켰기 때문에 抗日武裝鬪爭은 主體時代에 전세계인민이 세계 社會主義革命으로 나아가갈 革命的 財富라고 선전하면서 「金日成首領論」의 정당성을 날조하여 왔다.

지금까지 蘇聯은 北韓體制 維持의 기둥인 主體思想과 金日成首領論의 허위날조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최근 이를 공개적으로 批判하고 있다. 즉 蘇聯은 官營 言論을 통해 北韓政權의 樹立過程에 6.25에서의 蘇聯의 기여를 유달리 강조하고, 閉鎖의 시대착오성을 지적함으로써 北韓의 反改革 무기인 이른바 主體哲學의 격하를 겨냥하는 방식을 採擇하고 있다.

蘇聯은 6.25에 參戰했던 韓·蘇歷史學者의 證言을 통해 解放과 6.25를 전후한 蘇聯의 直接的인 對北 군사지원사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물론, 蘇聯側이 蘇聯軍의 6.25 參戰을 시인한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스크바 放送은 지난 88年6月 蘇聯이 50年부터 軍사고문단외에도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 많은 미군기를 격추함으로써 朝鮮人民軍을 도왔다고 보도, 參戰을 최초로 시인했었다.

그러나 90年3月 모스크바放送은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 숫자를 곁들여 6.25와 2차대전 말기 對日戰에서 蘇聯이 北韓에 베푼 「은혜」를 체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90年3月14일과 21日 모스크바放送은 蘇聯이 6.25 동란중 7만명의 空軍兵力을 동원, 北韓을 지원했으며, 한때 5개기갑사단으로 구성된 지상군을

投入할 계획도 세웠었다고 보도했다. 이 放送은 蘇聯空軍操縱士로 6.25에 參戰했던 게오르기 블루드미로프의 말을 인용, 空軍兵力은 戰鬥機操縱士 기술자 고사포병 등이었고 北韓軍의 戰鬥狀況이 惡化될 경우 기갑사단도投入 하려 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放送은 또다른 參戰空軍將校인 조르지 노봄즈의 證言을 빌려 6.25 때 蘇聯空軍 12개 항공사단이 교체돼가면서 投入돼, 美空軍의 수송발전소 폭격기도를 여러차례 저지하는 등 주임무가 美공군기의 공습을 막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放送은 蘇聯軍이 2차대전 말기인 45년 8월 對日戰에서 전사자 1千5百名을 包含, 4千1百17名의 사상자를 냈다고 보도했다. 蘇聯은 2개저격사단을 비롯, 해병부대와 태평양함대의 전함과 항공대를 投入, 45년 8월 日本軍 수비대와의 교전끝에 웅기, 나진, 청진 등을 잇달아 장악했다고 이 放送은 전했다.

이 放送의 이런 내용들은 北韓이 政權樹立 背景에 대해 날이 갈수록 金日成의 「항일빨치산투쟁」을 주로 강조하고, 6.25와 관련해서는 北韓軍의 자체역량과 中國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대한 蘇聯의 反應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蘇聯은 金日成이 45年 12月 14日 평양군중대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해방자 蘇聯에 대한 우의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했던 연설을 새삼 인용하면서 北韓이 최근들어 金日成의 항일빨치산투쟁을 더욱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모스크바放送은 이에 그치지않고 北韓에도 變化의 시점이 도래했지만, 變化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直接 꼬집었다. 이 放送은 蘇聯共

産黨青年同盟 기관지의 平壤特派員發 기사를 인용, 北韓이 주민들을 사상적 정치적 투쟁에만 동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목적지향적 보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蘇聯의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이 토의됐고 호네커의 운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관하여 北韓 言論은 일질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지난 86년의 블라디보스토크宣言, 88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등을 통해 蘇聯도 아시아國家임을 천명하고,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再定立을 통해 軍縮질서등 이지역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구축하자고 제의했었다.

北韓은 페레스트로이카가 東아시아에서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를 방해하는 障礙物이 된셈이다.

이같은 사태흐름을 볼때 北韓이 蘇聯의 直·間接 중용을 받아들여 東獨의 길을 갈것인지, 아니면 루마니아의 길을 갈것인지는 순전히 北韓 스스로가 選擇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Ⅲ. 北韓體制的 對內的 變化 要因

#### 1. 慢性的인 經濟 沈滯

오늘날 北韓이 當面한 最大의 內患은 長期的이고 構造的인 經濟沈滯에 있다.

北韓은 지난 第1次 7個年計劃(61~67), 7個年計劃의 3年 延長(68년~70년), 6個年計劃(71년~76년)의 15年間 7.5%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記錄해 같은 期間중 南韓의 1·2·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長率 9%에 육박했었다.

특히 經濟開發計劃이 最高潮에 달했던 60년대 中半에는 北韓의 經濟成長率이 南韓보다 높았으나 73년을 起點으로 1人當 GNP가 南韓보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80年代 들어 北韓의 經濟成長率이 急激히 鈍化돼 78년~84년의 第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4.3%로 떨어졌고 85~86년 조정기와 87년~93년의 第3次 7個年計劃 期間中の 成長率은 아예 發表조차 않고 있다.

다만 國際經濟機關에서의 推定值로는 88년에 3% 實質成長率을 記錄, 3次 7個年計劃期間 目標率인 7.9%에 크게 未達했다. 88년의 1人當 GNP는 9백 80 달러 水準으로 南韓의 4分の1 水準이며 1人當 可用消費額은 4백 75 달러로 南韓의 2천 6백 달러에 비해 5.6分の1 水準밖에 안된다.

88年度 國民 1人當 쌀 生産量을 보면 北韓이 1백 4.3 kg, 南韓이 1백 32.1 kg이다. 그런데 南韓은 年間 約 40億 달러 相當의 穀物을 輸入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 相當量의 쌀을 蘇聯 등에 外貨獲得을 위해 出血輸出해



1人當 「알곡」 消費可能量의 격차는 더욱 크다. 北韓은 쌀대신 강냉이 (옥수수)·감자 등으로 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이 60년 대 第4次 黨大會서 “64년은 이밥(쌀밥)에 고기국을 먹게되는 우리 人民의 生活向上을 위한 劃期的인 해가 될 것”이라는 장담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0년 3월 蘇聯의 改革派 週刊紙 「아르구멘티 이 파크티」(論據와 事實)는 北韓이 經濟的인 「危機」에 直面해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어떤 結果가 될 것인지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政權의 例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指摘했다.

「北朝鮮 - 傳說과 現實」이라는 題目의 이 記事는 北韓을 「金日成의 博物館」이라고 指稱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의 초상과 金, 銀으로 만든 像이 세워져 있고 國民을 이 指導者의 恩德으로 世界에서 가장 幸福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現實은 것처럼 달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記事는 「식료품과 의료 및 의약품 기타 가장 基本的인 物資의 결핍」으로 “주민감정에는 점차 不信과 不安 및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北韓의 이같은 「危機狀況」의 원인으로 ① 만성적인 에너지資源의 부족 ② 經濟管理 시스템의 낮은 效率性 ③ 國家 豫算의 30%에 달하는 軍事費 지출 ④ 對蘇 債務 22億달러(89년 11월 現在)를 비롯, 총 30億~45億달러에 이르는 償還不能의 누적된 對外債務를 들었다. 물론 蘇聯의 한 雜誌가 北韓 經濟現實을 어느정도 정확히 反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많은 示唆點을 던지고 있어 順次的으로 檢討할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北韓은 蘇聯으로부터의 原油輸入 減少로 심각한 에너지 危機에 직면하고 있다.

北韓은 86년 이래 연간 1천 1백만~1천 4백만배럴의 原油를 蘇聯으로부터 輸入해 왔다. 蘇聯產 原油는 北韓의 연간 精油能力 2천 5백만배럴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절대적인 공급선이 돼왔다.

그러나 蘇聯은 89년 11월 이후 經濟難에 따른 減產으로 北韓에 대한 原油供給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때문에 北韓은 부족분 原油를 이란으로부터 국제시세로 구입하고 있으며 소도시에만 남아 있던 木炭車가 89년에 다시 등장할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北韓은 그동안 국제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蘇聯으로부터 원조용 원유를 供給받아 왔고 원유대금도 대부분 현물이나 勞動力으로 결제함으로써 커다란 惠澤을 입어 왔다. 그러나 蘇聯은 91년부터 原油를 포함한 北韓과의 求償貿易方式을 現金決濟方式으로 바꾸기로 결정함으로써 外貨不足에 시달리는 北韓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우기 蘇聯은 90년 10월 7일 올해의 對外原油 輸出量을 5% 삭감함에 따라 共產圈에 싼값으로 팔아 온 援助用 原油를 30% 줄이겠다고 宣言했다. 이때문에 쿠바같은 나라는 벌써부터 燃料不足으로 工場과 營農設備의 가동이 중지되는등 심각한 오일쇼크를 겪고 있다.

둘째로 北韓 經濟體制의 非效率性에 따른 生産性 低下로 經濟沈滯가 지속되어, 南北韓 體制 競爭에서 劣勢에 놓일 運命에 처해 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北韓은 生産性에 있어서 南韓을 앞질러 있었다. 그들은 近代化과정의 初期段階에서 人力과 自然資源의 동원, 重工業

치중, 消費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과 같은 스탈린주의적 방식의 利點을 최대한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北韓의 生産性은 韓國의 7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다. 이 時代에 있어서 커다란 經濟的 敎訓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技術과 담을 쌓은채 좁은 市場안에 갇혀 自給自足經濟를 추구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軍事費支出의 부담 또한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

따라서 문제는, 北韓이 과연 그들 經濟政策을 이미 변화시키고 있는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과 조화되게 변화시킬 것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그같은 變化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다. 北韓은 이미 觀光을 振興시키기 위해 선전을 하면서 외부에서 合作企業도 誘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과의 合作이 어느 정도 실현되려면 그 이전에 그들 내부에서 많은 經濟的 變化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北韓經濟危機를 초래한 가장 큰 要因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軍事費 負擔이라는 데는 反論의 여지가 없다. 英國의 國際戰略研究所 (IISS)가 발행한 「軍事均衡」(Military Balance 1989~1990)에 따르면 88년 北韓은 中國 잠수함(031型) 2정을 추가했고 공군도 MIG 29 34대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또 北韓에는 26개가 아닌 31개 보병사단이 있고 예비보병사단도 2개사단과 18개 독립여단이 있다는 종래의 분석을 수정해서 26개 예비보병사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南韓은 F 16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지난해에 韓國空軍이 갖고 있는 F 16은 두배로 늘어나 48대가 된다. 그렇지만 南韓이 國防費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經濟成長速度가 훨씬 빨라서 별로 그 增加負擔이 없으나 北韓은 經濟가 확대되지 못하는 형편에 國防費를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액수로 보면 이 報告書에서는 北韓 國防豫算이 1988년의 경우 40억 7천만달러이고 같은 해 南韓 國防豫算은 85억 1천만달러로 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규병력수도 北韓이 1백 4만, 南韓은 65만명으로 기록되었다.

넷째로 北韓은 西方國家들로부터 外債償還不能國으로 낙인 찍힌 가운데, 蘇聯의 요구에 의해 91년부터 蘇聯과의 모든 貿易決濟를 이전의 求償貿易에서 硬化決濟方式으로 바꾸기로 합의함으로써 北韓은 總 交易중 40%~50%에 달하는 蘇聯과의 交易이 크게 減少하면서 經濟的 破綻 일보직전에 직면하고 있다.

北韓이 이같은 要因에 의해 장기 經濟沈滯를 겪고 있으나 閉鎖體制를 維持하며 對外開放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北韓은 48년 政權樹立後 지금까지 「政經一致」原則에 입각, 黨이나 理念을 經濟的 利益·消費등보다 앞세워 왔다는 점이다. 즉 남조선해방을 위해 軍需産業을 육성했고 對外經濟政策도 전통적인 마르크스 理論에 입각, 社會主義 영향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北韓은 資本協力을 「帝國主義의 膨脹戰術」로 보아 이를 거부하고 北韓을 自給自足體制(Autarky)로 만들기 위해 生産手段의 集團所有, 計劃經濟體制 運用, 무역의 國家獨占化를 推進해 왔다.

따라서 84년 합영법의 제정으로 西方資本을 유입하고자 한 것도 經濟沈滯 脫皮를 위한 外貨獲得에 목적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다.

둘째, 主體經濟 속에서 重工業 優先政策을 밀고 나왔으나 주민들에게는 宣傳을 통해 北韓體制的 우수성을 強調했고 慾求를 억눌러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불만이 적다는 점이다. 北韓은 몇년전부터 平壤거리를

비롯해 전국에 「우리식대로 살자」, 「地上的樂園, 부러울것이 없어라」는 등의 대형구호 플래카드를 내걸고 金父子體制의 선전과 개방에의 거부를 강력히 表明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마지막으로 끝없는 勞動의 강요로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온 점이다. 50년대부터 시작된 천리마운동, 새벽별보기운동에서부터 최근의 2백일, 3백리 전투등 사회주의국에서도 가장 강한 스타하노프주의 (Stakhanovism)를 지켜왔기 때문에 農民들까지도 勞動者와 같이 변할 만큼 統制가 훨씬 쉬운 점등도, 閉鎖를 지킬 수 있는 원인중 하나이다.

## 2. 韓國의 北方政策과 體制的 挑戰

1970年代末 美·蘇間의 데탕트體制가 무너진 후, 레이건 行政府는 對蘇 強硬政策을 추구했다. 이와같은 상황은 東北亞 國際環境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따라서 70年代末 이후 아시아·太平洋에서 美·蘇間의 角逐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書記長에 취임한 후 蘇聯은 기존의 對아시아 軍事政策과 對外經濟協力 擴大라는 2重的인 부담을 덜기 위해 平和攻勢政策을 지속시켰다. 블라디보스톡演說은 蘇聯이 추구하고 있는 和解路線에 입각한 平和攻勢의 一環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이 演說에서 軍事的 緊張緩和를 위한 方向으로 中國과의 국경지역의 蘇聯軍 撤收可能性, 아무르江 國境線 紛爭의 해결, 中國·베트남關係의 正常化,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 가능성, 南太平洋과 韓半島의 非核地帶, 太平洋에서의 海軍活動의 減縮, 中·蘇國境에서의 相互減軍, 太平洋海軍

안전을 위한 조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蘇聯軍撤收 등의 軍事安保의 諸措置 解決努力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고르바초프는 太平洋 經濟協力에의 적극적 參與意思와 시베리아·太平洋經濟圈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美蘇關係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兩國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同盟關係의 변화를 초래할 행동을 하지않았다.

蘇聯은 1984年 金日成의 訪蘇이후 1986年에도 對北韓 軍事的 密着關係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蘇聯은 美國과 대당트를 추구하면서도 北韓과는 정책과 矛盾되는 對策, 즉 군사적 결속 강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蘇聯의 평화공세의 의도는 否定的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蘇聯은 1987年에는 北韓과 軍事協力關係를 강화시켰다. 蘇聯國防次官 겸 海軍總司令官 블라디미르 체르나빈 제독은 1987年 5月 11~16日 間 북한을 訪問하고 蘇·北韓間 軍事協力 強化를 촉구했다. 또한 며칠 후인 5月 18日 蘇聯 國防次官 겸 蘇聯軍 民防衛司令官 블라디미르 코호로프대장을 단장으로 하는 蘇聯軍 代表團이 북한을 방문하여 朝鮮의 對北韓 軍事援助 增進方案을 論議했다.

또한 蘇聯은 北韓의 ‘多國的 軍縮協商提議(1987. 7.23)’을 적극 지지했다. 이는 종래 북한의 3者會談 제의에 대하여 消極的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蘇聯이 군축을 위해 南·北韓·美國 3者會談을 지지했던 이유는 이 회담이 南北韓軍의 減縮과 장래 美國의 核武器 撤收를 토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希望하였기 때문이었다. 蘇聯은 美國의 核武器를 全世界에서 撤收시키려는 전략하에서 북한의 非核地帶化 提議와

駐韓 핵무기 철수제의는 이와같은 蘇聯의 政策과 부합된 것이다.

韓國은 이와같은 蘇聯의 二重政策에 대항, 安保的 側面에서 美·日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維持·增大시켰다. 한편으로 韓國은 비공식적 수준에서 蘇聯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1983年 9月 1日 KAL기 격추사건 이후 냉각되었던 韓·蘇關係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韓·蘇間 貿易規模가 86年度 5千萬달러에서 87年度 1億 6千萬 달러로 증대되었다.

이와같이 low politics 차원에서 韓·蘇間 신데맷트분위기가 86年-87年間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美·蘇는 세계적 데맷트 분위기 형성에 발맞추어 한반도의 緊張緩和를 추구했고, 蘇聯은 대한인식 변화과정에서 韓半島에 두개의 實體를 認定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1988年 2月 25日 盧泰愚大統領은 그의 就任辭를 통해 北方外交의 추진을 確約·宣言함으로써, 북방정책은 韓國의 外交政策으로 정립되었다. 여기에도 북방정책의 명백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同年 4月 29日 이흥구 統一院長官이 全經聯 월례 조찬회에서 행한 “韓國의 統一政策과 北方外交”라는 특강에서 ‘北方’을 中國·蘇聯·東歐諸國·北韓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은 盧泰愚大統領의 7.7 宣言을 계기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第6共和國의 北方政策은 북한과의 對立外交, 孤立化政策을 止揚한, 즉 共存外交路線을 취하는 7.7 宣言으로의 방향전환을 함으로써 對共產圈 交流擴大의 길을 트이게 한 것이다. 同 宣言은 冷戰體制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온 한반도에서 남북한 대결구조를 民族共同體의 共存共榮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平和共存體制에로의 전환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同 宣言에는 ①韓半島의 平和定着과 平和的 統一基盤 造成, ②蘇聯, 中國 기타 東

歐圈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통한 외교영역 및 국제적인 지지기반의 확대,  
③ ‘우리는 經濟的 進出과 自然資源 供給原 確保 등을 통한 국가의 實益  
追求라는 北方政策의 目標을 정확히 담고 있다.

이와 같이 北方政策의 추진을 위해서 마련되고 있는 制度的인 補完이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共產國家들의 反應은 肯定的으로 나타났다.  
中國과 蘇聯은 韓國이 취하고 있는 북방정책의 기본취지에 同意하였다. 이  
러한 中·蘇의 反應은 南北韓의 平和共存을 위한 直·間接的인 支援의 次元  
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7.7  
宣言’에 대해 中國이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으며,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韓  
半島 緊張緩和과 平和적인 共存體制 구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宣言이라고  
한 사실이다. 즉, 中·蘇는 第6項의 “韓半島의 平和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北韓이 美國 日本 등 우리 우방과의 關係를 改善하는 데  
協調할 容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蘇聯·中國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과  
의 關係개선을 추구한다”는 韓國의 積極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적 태도표명  
에 대해 美國이나 日本 등 우방국가의 의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7.7 宣言으로 結實을 맺은 韓蘇修交와 準外交 기능을  
가진 中國과의 貿易代表部 설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심각한 環境  
的 도전으로 작용할게 틀림없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內部體制와 對外關係에서 解決될 수 없는 深刻한 矛  
盾에 빠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社會主義理念과 個人  
崇拜에 기초한 全體主義的 國家權力體制의 現實사이의 矛盾에 빠져있고,  
對外的으로는 南韓體制의 實存的 正統性을 부인하는 革命的 統一政策과 이미



돌이킬 수 없게 확고하게 된 大韓民國의 存在사이의 矛盾에 直面에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蘇聯의 改革政策은 內部體制的 矛盾에 韓·蘇, 韓·中關係는 對外的 矛盾에 深刻한 挑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처칠은 半世紀前에 “러시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러시아는 불가사의속에 의문으로 포장된 수수께끼와 같다”고 했지만 오늘의 北韓이야말로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할수밖에 없다. 다만 한가지 分명한 점은 北韓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客觀的 狀況이 성숙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北韓 指導層의 能動的으로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는 변화를 主導하느냐, 아니면 體制가 自體矛盾에 의하여 폭발할 때까지 現體制的 固守만을 고집하느냐 하는 選擇뿐이다.

### 3. 北韓社會 內部的 不滿 增大

90年 6月 루마니아 집권당 救國戰線 指導者 실비우 브루칸 박사(부쿠레슈티大 교수)는 “北韓에는 상당수의 反金日成세력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노동당 中央委員 등 高位職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北韓內 反體制努力的 存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브루칸박사는 지금까지 4차례 北韓을 다녀왔다. 그는 62, 75, 79년에는 金日成과 직접 만나 회담을 가져 權力構造등 北韓體制 實狀에 어느 누구보다 정통한 학자이다. 따라서 그의 北韓에 관한 發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무게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金日成에 반대하는 세력은 상당수입니다. 現在 北韓에서는 知識層들을 중심으로 反金日成組織이 形成되고 있어 이미 體制改革이 시작되었다고 보는게 적절할 것입니다.” “北韓은 過去 루마니아와 비슷한면이 많습니

다. 金日成獨裁政治가 차우세스쿠 1인 獨裁體制와 흡사하고, 金日成이 그의 아들 金正日에게 권좌를 물려주려하는 것 역시 차우세스쿠가 아들 니콜에게 權力을 세습시키려한 것과 같다고 볼수 있지요. 社會政治體制를 유지하기위해 愚民化政策 閉鎖政策 言論彈壓 등을 해온것도 꼭 같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民衆들의 봉기로 일순간에 獨裁政權이 打倒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北韓도 멀지않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멀잖아 世界人들은 루마니아 市民抗爭과 같은 歷史的인 事件을 北韓에서도 볼수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브루칸 박사의 發言은 90年 4月 北韓에서 실시되었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舉後 예상되었던 金正日 로의 權力承繼가 무산되고 1980年 이후 10여년간 노동당대회가 열리지 않은점과 연관되어 北韓 내부사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에서는 90年 2~3月 平壤市內에서 金日成肖像畫 毀損事件이 몇件이나 발생했으며 北韓當局은 이를 國家犯으로 간주, 대대적으로 조사했으나 아직 까지도 犯人을 잡지 못했다.

또한 89年부터 90年 봄에 걸쳐 공장과 탄광에서 某種의 폭동 또는 파업이 몇건 발생했다. 參加者들이 다수 연행됐다. 90年 들어 平壤市內에서 金日成 비방 뼈라 살포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前例없는 일들이 벌어진 배경에는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유발할만한 새로운 施策의 시행과 慢性的인 경제핍박이 깔려있으며, 東유럽 유학생들의 소환조치도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經濟難 打開을 위해 종래의 1일 8시간 노동제를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1日 12時間 노동제로 바뀌 대대적인 住民 動員 캠페인을 벌였다.

더욱이 北韓當局은 89年부터 「石油基金」을 만들기위해 전체 住民의 金  
료에서 一定額을 징수하여 왔다. 여기서 派生될 수 있는 住民의 不滿을  
누르고 蘇聯과 東유럽 變革의 影響을 遮斷하기 위해 北韓當局은 住民에 대  
한 思想教育을 強化했다. 그리고 이는 制限의이긴 하지만 住民들이 不滿을  
加重시키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北韓當局은 東유럽 變革의 바람이 流入되지 못하도록 89年 가  
을부터 東유럽 유학생들을 소환한데서 그치지않고, 情報遮斷을 위해 이들을  
공장과 광산등 勞動現場으로 보냈다. 그러나 當局의 「情報遮斷」目標가 成  
功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같이 北韓의 內部事情을 전한 이 東유럽 소식  
통은 이처럼 北韓住民들의 不滿이 部分的으로 表出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이 權座에 있는 한 組織的인 不滿暴發은 不可能하기 때문에 金正日의  
權力移讓計劃이 延期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情報가 遮斷된 北韓에 대한 西方의 言論報道가 얼마나 正確한지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情報化時代에 접어든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情報遮  
斷에 의한 愚民化 獨裁體制 固守는 國民의 抵抗을 불러 일으킬 것은 당  
연하달 수 밖에 없다.

#### IV. 向後 北韓體制的 變化 方向

蘇聯·東歐등 社會主義體制的 變化와 특히 蘇聯의 대한반도 政策變化는 北韓體制變化를 강요하고 있으며, 最近 金日成도 이러한 國際情勢變化에 對應하여 1年前만 하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對日修交 및 南北頂上會談 可能性까지 거론하는등 國際社會에서 北韓이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努力을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體制 改革·開放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스탈린식 全體主義 體制를 고수해온 北韓의 政治·經濟體制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國際秩序의 變化에 따른 體制的 負擔을 對內的 體制維持 能力과 조화시키는 方向으로 조정해 갈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 金日成은 90年 봄 아들 金正日에게 全權을 이양하려던 計劃을 變更, 자신의 生存中에 段階的으로 이양하려는 計劃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計劃變更은 國際秩序의 變化 및 東北亞 政治秩序의 變化에 따른 北韓 內部的 「부정적」 要因 增大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은 北韓內部的 安定狀態에서 權力을 승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다져 나가면서 權力承繼후 對外開放에 따른 體制的 생존력 強北作業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金日成은 第1段階로 軍部の 金正日 親衛體制化 作業을 시도하였다. 4月 24日 열린 北韓軍 創建 58周年 紀念報告 大會에서 총참모장 崔光은 報告 演說을 통해 “北韓軍이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革命武力으로 더욱 強化發展된 것은 金正日의 세련된 영도력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위적 軍事 노선을 제시했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北韓軍에 대한 金正日의 主體的 영도를 강조한 中央報告大會의 주석단에

는 人民武力部長 吳振宇도 參席했다. 金日成, 金正日의 군부대 방문때도 吳振宇, 崔光, 金光鎭대장등 고위 간부들이 現地부대에서 이들을 직접 영접해 金正일이. 金日成과 함께 사실상 軍統治權者의 지위에 있음을 과시했다.

실제로 北韓軍部가 金正일에 대해 公式的으로 충성을 誓約하고 군대내에 金日成과 金正日의 사진이 나란히 걸리기 시작한 것은 90年 2月 金正日 생일무렵 부터였다. 지난 해까지만해도 金日成의 후계자자리를 놓고 金正日과 吳振宇간에 갈등이 있다는 추측들이 한동안 나돌만큼 金正日是 군부내 支持 기반이 약했다.

그러나 北韓軍은 海外留學, 海外軍事訓練團 參加, 휴전선 배치 兵力의 南韓 對北放送 청취등 바깥세상 소식에 많이 접하는 關係로 폐쇄적이 아니다. 어찌보면 北韓內에서는 가장 對外情報를 접하는 부류이다.

이때문에 젊은 北韓軍 장교들의 경우 北韓의 1人專制體制와 權力世襲에 비판적인 시각은 可能性이 크며, 실제로 86年 12月과 87年 5月に 일어난 金日成 암살기도는 金日成 반대파 軍人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점을 잘 알고있는 北韓當國이 金正日 權力承繼 作業에 있어 軍의 움직임을 가장 경계하고 있어 北韓의 「軍단속」은 갈수록 強化될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은 1次的으로 政治權力의 核心인 軍部權力을 親 金正日勢力으로 만든후 政治體制의 유지 및 權力承繼의 기반을 갖추므로써 國際秩序의 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國內的 基盤을 확고히 하기위해 努力하고 있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權力基盤을 공고화시킨 후, 變化하는 國際環境에 對應하고 外交的 高립을 脫皮하기 위한 二重的 戰略을 段階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이러한 戰略은 金日成의 權力承繼 期間中 段階的으로 推進될 것이다. 즉, 主體思想에 입각한 對南革命戰略은 그대로 維持시키면서, 對美·日 유화정책 내지 國交關係 樹立政策을 追求하고자 할 것이다. 金日成은 이와 같은 二重戰略을 遂行함으로써 1次的으로 國際舞臺에서 高립을 脫避하고, 日本 및 美國과의 關係增進을 통한 經濟協力을 얻어내 國內的 經濟發展을 일정한 수준으로까지 열어 놓을 것이다. 이에 따라 北韓은 韓國과의 競爭에서 유리한 제어수단을 마련하면서 對南武力鬪爭의 方法을 「體制優越論」에 입각한 統一을 追求하려는 장기적 對南·對美·日·西方外交政策을 推進해 나갈 것이다.

金日成은 이와같은 對外政策을 통해 金正日에게 權力을 繼承할 수 있는 國內的 基盤을 다져가려는 中期政策을 推進할 것이다. 즉, 金日成은 金正일이 權力을 承繼한후 體制的 正當性和 效率性을 確保함으로써 金正日體制的 安定化 및 長期持續을 기도하고 있다. 體制的 正當性은 革命1세대 및 軍부와 테크노크라트들의 積極的 支持 獲得을 통해서 유지하려 하고, 體制的 效率性은 制限的 對外開放을 통한 西歐 및 日本의 資本 유치를 통한 經濟發展을 가시화시킴으로써 確保코자 金日成은 과도기간중에 努力할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金日成은 權力承繼期間中 積極的(急進) 變化인 보다 점진적인 變化를 追求할 것이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體制變化 戰略은 北의 對南政策에서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金日成은 主體思想의 원리에 입각해 對南革命의 當위성을 北韓 住民에 주입시켜 왔다. 따라서 金日成은 이와같은 對南政策을 고수하기 위해 國際環境의 變化 및 韓國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따른 實現不可能性을 유인 單一議席 加入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하여 南北對話 및 接觸의 창구를 마련하

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명목상으로만 北韓內 統一 분위기를 造成하고 對南協商에 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對南戰略은 金日成의 權力承繼 정지작업 기간중에 持續될 것이다. 金日成은 이와 같은 명목상의 南北韓 화해 분위기를 造成하고, 對美·日 接近을 통한 經濟的 실리를 獲得, 北韓體制的 效率性を 增大시킴으로써 北韓內 反體制 勢力 形成契機를 차단하고 體制的 安定化를 增大코자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北韓의 對南政策은 2~3年間 現在와 같은 수준에서 또는 약간 增進된 수준에서 持續될 것이다. 이 경우 南北韓 關係가 보다 增進될 수 있는 要因은 蘇聯 및 日本의 對北韓 態度라고 볼 수 있다.

즉, 蘇聯은 現在 國內의 經濟問題 때문에 對北韓 經濟援助 및 經濟協力を 증진 수준보다 弱化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金日成은 日本과의 外交關係 樹立를 통해 經濟的 實利를 追求코자 하지만, 日本의 政策이 具體化되는데는 北韓의 기대보다 늦어질지도 모른다. 이 경우, 北韓은 當面한 經濟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라도 韓半島 國際關係에 이니셔티브를 쥐고있는 韓國과의 關係增進을 推進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要因이 南北韓 關係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머지않은 將來에 南北頂上會談 開催를 위한 積極的 立場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金日成이 이와같이 權力承繼 이전에 民族解放鬪爭의 표적인 韓國의 頂上과 희망을 開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① 韓國이 經濟協力の 제일 중요한 對象國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없으며,

② 頂上會談을 통한 統一分위기를 조성하여, 北韓住民들을 다시 무마시키고, 金正日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對南關係를 維持할 수 있는 基盤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體制의 效率性を 確保함으로써 北韓 政治體制, 특히 金正日體制의 정당성을 確保코자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北韓의 對南政策은 金日成의 權力承繼 직전에 커다란 變化를 보일 것이다.

이와같은 對南戰略과 關聯, 北韓社會의 變化 여부는 역시 金日成의 對南政策의 變化에 커다란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2~3年間 金日成은 점진적인 對南政策이나 開放政策을 追求할 것이기 때문에, 現在까지 外部의 情報 유입이 차단된 狀況을 그대로 維持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社會의 變化는 留學生들을 소환한 상태이지만, 이들이 中國의 留學生들과 같이 革命勢力으로 등장할 可能性은 희박하다. 中國의 경우, 開放政策을 推進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反政府勢力으로 등장할 수 있었으나, 北韓은 中國의 천안문 事態를 거울삼아 海外留學生들이 反政府 또는 反體制 勢力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완전히 차단시켰다. 한편, 北韓內部에 反體制勢力이 부분적으로 存在하지만, 金日成은 北韓社會를 主體思想下的 병영체제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海外留學生 및 反體制勢力이 金日成의 權力 承繼과정중에는 社會의 變革勢力으로 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2~3年間 北韓社會는 東歐와 같은 정도의 變化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더불어 北韓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資本主義的 要素를 받아들여 經濟發展을 加速化시킬 경우, 北韓 社會의 變化 可能性을 考慮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北韓은 지금까지의 經濟統制政策에 입각해 國家中心的 經濟政策을 推進하여 北韓住民들의 經濟生活 向上 政策을 追



求할 것이기 때문에, 全體主義的 政治制度下에서의 資本主義的 經濟運營은 北韓社會의 變化를 誘導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發揮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經濟協力을 통한 北韓體制的 變化를 誘導하는데는 限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金日成이 權力을 承繼하기 以前, 政治體制的 效率性的 增進은 金正日의 權力基盤을 鞏固化시키는데 寄與할 뿐이다.

上述한 見解를 土臺로 綜合하면, 金日成의 權力承繼時까지 北韓의 體制 變化可能性은 漸進的인 段階로 進行될 것이다. 金日成은 이와같이 體制的 安定的 발전기에 이르러 權力을 金正日에게 承繼함으로써, 지난 45 年間 維持해온 北韓政治體制的 연속성을 確保하는데 努力할 것이다. 現在의 狀況으로 보아, 北韓의 金日成이 이와같은 段階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최소한 2~3 年 정도 所要되리라고 본다. 金日成은 이러한 構圖下에 '90 年 權力承繼 計劃을 白紙化시키고, 國際環境에 適應할 수 있는 中期的 戰略을 樹立하여 對內外的으로 具體化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權力承繼戰略이 段階的으로 進行되었을 경우, 金正日이 權力을 承繼할 時期는 대략 2~3 年後로 豫測된다.

金日成의 權力承繼計劃은 北韓體制的 視角에서 보면 상당히 合理的인 計劃으로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이 計劃은 主體思想으로 무장된 이데올로기적 視角에서 樹立된 것이기 때문에, 그 限界성을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즉, 金日成은 現在 維持되는 體制的 正統性이 權力承繼後에도 持續될 수 있다는 假定을 토대로 權力承繼計劃을 進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金日成이 承繼후 體制的 정당성이 弱化되는 것을 對備해 단계적 措置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金正日이 權力을 承繼했을 때, 金正日 體制的 正統性 確保를 위해 取해진 諸措置가 政治現實에 그대로 適用될

것인가는 의문시되며 政治的 狀況은 急變할 것이다. 그러면 金正日의 權力 承繼後 北韓의 政治體制는 어떠한 方向으로 進行될 것인가?

社會主義 國家들의 革命 1世代가 政治權力을 이양한 後, 革命이데올로기는 承繼한 統治者에 의해 變質되는 것이 一般화된 경향이다. 따라서 金正日 자신도 權力을 承繼한 後, 主體思想을 자신의 統治方式에 맞는 변형된 主體思想으로 北韓住民을 教化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主體思想의 正統性은 弱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作業이 進行됨에 따라, 現在 金日成의 政治權力을 지탱시켜 주는 軍부의 革命 1世代는 金正日에 대한 支持의 이반현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政治權力 核心의 이완현상은 政治權力內에 反金正日勢力을 形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同時에 體制의 效率性을 위해 段階的으로 推進되어 온 對外開放 政策은 實質的인 經濟發展에 커다란 寄與를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政治權力의 이완현상이 潛在되어 온 北韓住民의 不滿을 증폭시키고 波及效果를 초래하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段階가 深化되면, 金正日의 추종세력인 테크노크라트들의 실용주의 노선이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政治權力內 실용주의 路線과 現狀維持 派間의 政策對立으로 深化되면서, 金正日 政治體制는 深刻的 正統性 危機에 處하게 될 것이다. 이 過程에서 政治勢力間의 權力論爭이 深化되고, 體制維持를 위한 勢力間의 담합의 結果로 集團指導體制가 出現될 可能性이 높다. 이 集團指導體制의 結果, 主體思想의 解體作業이 進行되면서 北韓의 政治·社會·經濟制度의 全面的 再構築作業이 段階的으로 進行될 것이다.

蘇聯을 中心으로 한 社會主義圈의 變化가 없는 狀況下에서 이와 같은 變化可能性은 추론할 수 없다. 그동안 蘇聯의 變化가 없는 狀況下에서 東

歐 一部 國家의 體制變革은 失敗로 끝났으나, 蘇聯의 急進的인 改革下에서 東歐는 變化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金日成體제도 蘇聯의 壓力에 입각해 부분적인 開放政策 및 對外政策變化를 가동시켰을 경우 東歐의 경우처럼 짧은 期間 사이에 커다란 體制變革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최근 社會主義圈의 體制變革과 北韓의 政策變化를 連繫시켜 考察했을 때, 北韓의 金日成體제는 權力承繼後 1~2年 사이에 急進的 變化를 겪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와같은 變化의 豫測은 現在의 視角이 아닌 1~3年後 變化된 政治的 狀況下의 視角에 基礎를 두어야만 그 妥當性을 얻게 된다. 따라서 金日成 以後 金正日 體制下에서 北韓體制는 東歐와 같은 急激한 變化를 겪게 될 것이다.

## V. 結論 : 우리의 政策方向

韓國은 南北韓間의 平和共存體制를 維持하고,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해 北韓의 開放과 體制變化에 直·間接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3가지 次元의 中·長期的 計劃을 樹立하고 實現시켜 나가야 한다.

(1) 韓國의 政治·社會的 安定 및 發展을 위한 國民의 合意에 바탕을 둔 政策의 樹立과 運營이 北韓의 開放誘導 및 北韓 政治體制的 形態變化를 誘導할 수 있다. 이를 위해 韓國 自體의 中·長期的 政治發展 政策을 樹立, 體制的 優越性을 確立하고, 北韓의 體制變化時에 北韓이 韓國의 立場을 수용할 수 있는 基盤을 確立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政策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經濟成長을 持續的으로 推進하여, 現在的 軍事能力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潛在的 軍事能力을 增大시키는 基盤을 造成해야 한다. 現在 經濟力의 側面에서 볼때 南韓이 北韓보다 5.5 배 정도 높은 水準이다. 이와 같은 격차를 더욱 擴大시켜 北韓의 對南武力統一에 대한 환상을 除去시킬 수 있는 經濟政策을 樹立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北韓이 韓國의 政治的 不安定을 政治協商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않기 위해, 우리는 政治體制的 安定化를 維持하는 政治를 運營해 나갈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 國民의 合意에 基盤을 둔 地方自治制의 段階的 定着, 國內 野圈 在野政治勢力의 制度圈 수용을 통한 政治·社會的 結合을 增進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政治·經濟的 發展을 통해 北韓이 自體의 문제를 對南革命鬭爭에 連結시키는 종전의 사고방식을 金日成 權力承繼後 나타나는 北韓의 政治·社會的 改

革期에 「北韓의 南韓化」를 誘導할 수 있는 動因이 될 수 있다.

(2) 北韓 政治體制 變化의 轉換點은 南北頂上會談의 實現이다. 따라서 우리는 金日成 이후 政治體制의 變化를 유도하기 위해 頂上會談의 成事を 위한 多元的 接近戰略을 推進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頂上會談 實現 후 金正日 體制가 確立되었을 狀況을 고려한 중장기 政策方向도 樹立해 나가야 하며 이때의 考慮事項은

첫째, 頂上會談의 實現을 위해 對北韓關係에서 對蘇關係 및 經濟問題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多角的 戰略을 樹立하고 이를 段階的으로 實現시켜 나간다.

둘째, 北韓 住民 또는 政治엘리트들의 政治的 意識의 變化를 유도하기 위한 戰略으로 第3國에서 非政治的 次元의 接觸·交流를 增大시켜 나간다.

셋째, 韓國이 蘇聯과 修交를 계기로 시베리아 開發을 구체화시켜 나가기에 앞서 北韓과의 共同參與를 提案하여 이를 통해 北韓이 現在 直面하고 있는 經濟的 難關을 部分的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네째, 現在의 敵對關係를 줄여나가기 위해 韓民族 共同體 意識을 增大시킬 수 있는 學術會議를 여러 분야별로 樹立, 第3國에서 積極的으로 유치한다.

다섯째, 金日成 이후 北韓 體制 變革期에 北韓의 政治的 狀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利用할 수 있는 政策과 戰略을 樹立해 나간다.

(3) 現在 推進하고 있는 北方政策을 보다 積極화하여, 北韓이 우리의 北方政策에 相應하는 南方政策을 推進하도록 유도하여 北韓自體가 스스로 開放政策을 추구하도록 間接的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즉, 金日成은 「國際革命力量의 結集」을 「南朝鮮解放」의 계기로 삼자  
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말을 뒤집어서 쓸때다. 이제부터 우리  
는 蘇·東歐의 變化물결과 西方의 協力을 묶어서, 그것으로 金父子體制를  
좌어 들어가는 國際的인 힘으로 變化시켜야 하는 것이다.

北韓體制 管理의 限界性과 改革模型 研究

1990년 12월 20일 인쇄

1990년 12월 29일 발행

통일원 조사연구실 제 1 연구관실

---

111 21-27